

## ● 자료해설

### 조령출 희곡 <리순신 장군>에 대하여

이상우

조령출의 희곡 <리순신 장군>(전9장)은 1960년에 씌어졌으며 1961년 평양의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간행된 『조령출 희곡집』에 수록되어 있다. 『조령출 희곡집』의 원전은 현재 남한에는 보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 하버드대학 연칭도서관에 소장(분류번호 : K5973.4/8576)되어 있다. 이 희곡집에는 <리순신 장군> 이외에 <량반전>(3장), <선화공주>(5막) 등 3편의 장막 희곡이 실려있다. 이 가운데 그의 대표적 희곡으로 꼽히는 작품이 바로 <리순신 장군>이다.

작가 조령출(趙靈出)은 1913년 충청남도 아산군 탕정면 매곡리 령인산 기슭에서 출생하였다. 그런 이유로 이름을 령출(靈出)이라 하였다. 그는 보성고보 재학 시절부터 시재(詩才)를 발휘하여 1932년부터 『조선일보』·『신동아』 등에 시를 발표하였고, 1934년에 시 <동방의 태양을 쏘라>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어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그는 문단 데뷔 무렵부터 본격 시보다는 대중가요 가사의 창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보성고보를 졸업하던 무렵 <알뜰한 당신>, <선창> 등의 가요시를 발표하였고, 오케 레코드사 이철 사장의 권유를 받고 대중가요 작사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대중가요 작사가로 활동할 당시 그는 趙鳴岩(오케 음반), 金雲灘(폴리돌 음반), 金茶人(콜롬비아, 리

갈, 태평 음반 등),李嘉實(콜롬비아 음반)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다. 1936년에 일본 와세다대학 불문과에 입학한 후에도 그는 <꿈꾸는 백마강> 등 수많은 가요시의 명편들을 창작하였다. 1930년대는 주로 시와 대중가요 가사(가요시)의 창작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희곡 창작은 194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 시작된다. 1940년 그의 희곡 <홍장미의 꿈>이 조선악극단에 의해 공연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일제 말까지 <왕소군>(1942), <영넘어 팔십리>(1943), <현해탄>(1945) 등을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프롤레타리아연극동맹과 조선연극동맹 등에 가입하여 서울예술극장을 중심으로 <독립군>(1946), <논개>(1946), <위대한 사랑>(1947) 등을 창작, 상연하면서 좌익연극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무렵 그는 극작 뿐만 아니라 연출 및 연기에 이르기까지 연극의 여러 영역을 넘나들며 전방위적 연극인으로 활동하였다. 1948년 월북한 그는 북한에서 교육문화성 예술국장, 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시나리오창작사 초대 주필 등을 역임하는 등 북한 문화예술계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다. 그는 민요개사운동을 펴는 한편 시, 희곡, 민족가극, 영화대본 등 여러 장르에 걸쳐 많은 작품을 생산하였다. 1957년에 조선작가동맹출판사에서 『조령출 시선집』을 출간한 데 이어 1961년에는 『조령출 희곡집』을 같은 출판사에서 간행하였다. 그리고 <춘향전>을 비롯해 다수의 민족가극 대본을 창작하였다.

조령출은 북한에서 <폭풍지구>(1950), <열두삼천리별>(1954, 조덕윤과 공동집필) 등 주목할 만한 희곡 작품들을 생산하였는데 <리순신 장군> 역시 그러한 작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본래 <리순신 장군>은 김태진이 1948년에 발표한 희곡으로서 애국적 영웅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건국 초기에 국가에 대한 북한 인민들의 충성심을 독려할 목적으로 창작, 상연된 것이다. 1954년 연극 <리순신 장군>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이 작품은 다시 씌어지게 되는데, 이갑기·황철 등 북한 연극인들과 더불어 조령출이 김태진의 작품을 수정, 보완하여 재창작하게 된 것이다.

조령출의 <리순신 장군>은 모두 9장으로 구성된 장편 역사극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애국심과 영웅성을 부각시킨 작품이다. 무적의 군함 거북선을 발명하고 뛰어난 해상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이순신의 전쟁 영웅적 풍모를 강조하였고, 국가에 대한 뜨거운 애국심, 백성들에 대한 자애심, 어머니에 대한 효성심을 지닌 그의 고결한 인간적 품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왜장 小西行長과 원군은 계략과 모함을 통해 이순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 하는 이순신의 적대자로 설정되어 있다. 그밖에 송희립, 리완, 리역기 등 이순신의 장수들과 김룡길, 옥지, 김노인, 봉녀 등 이순신을 도와 왜적들과 싸우는 민중들의 활약상을 비중있게 다룸으로써 역사의 주인공이 뛰어난 영웅 개인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싸우는 인민 전체가 된다는 사실을 은연중 강조하고 있다. 비록 이 작품은 해상 전투 장면과 같은 활극적 요소는 풍부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무대에 거북선이 등장하고 등장인물과 사건의 규모가 큰 이른바 ‘서사시적 화폭’의 역사극이다. 또 낭송자가 간간이 무대 중간막 앞에 등장하여 낭송시 형태의 해설을 곁들이며 서사적 압축을 통해 극 사건을 전개시키기도 한다. <리순신 장군>은 여타 북한 희곡들과는 달리 이념 선전적 요소를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매우 특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바다 밖으로

노쇠의 무리들을 몰리치며 나아가자.

진모의 부음을 슬피라.

△ 리완이 부음을 슬피다.

△ 모두 장안하랴 밖의 집이다.

△ 구름과 파도를 헤쳐서 장안은 전진한다.

△ 소서의 아장은 혼비백산하여 나간다. 두 왜병도 허둥지둥 총검과 보화 상자물 따서 돌보 도망치듯 나가 버린다.

리운신 (제장들에게) 모두 모이도록 하라.

리완 예이。(회장。)

△ 나팔이 울린다。

△ 탐후장 급히 등장。

탐후장 아뢰오。 고성(固城) 사천(泗川)의 왜적선 六〇〇여 척이 소서 중애적을 구원코자 지금도 땅을 향하여 진격하고 있소이다。

리운신 알았다。 보라, 원수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항복코자 아니 한다。

△ 리완을 비롯한 군관 제장들 등장。 용진을 비롯한 의병 장정들 등장하여 배우에 술이 선다。

리운신 듣거라。 마지막 원수들을 아내는 섬스런 싸움으로 나아갈지르다。

우리 나라 강토를 유린하고,

우리 나라 창생의 외와 재보를 모략질하는 자들, 한숨의 원수라도 남김없이 몰아낼지르다。 천만년으로 누릴 이 나라 복지를 위하여,

조상들의 슬기를 펼쳐

영웅담 제

△ 아장은 화친서를 들고 전하고 두 해병은 선물을 장군 앞에 놓고 절한다.  
△ 중회림은 화친서를 받아 장군에게 준다.

리순신

(화친서를 받아 본다.)...일본 장병은 이제 싸움할 생각이 없으며 화친코자하니... 우리 일본 군사로 하여금 돌아갈 길을 열어 주기 간곡히 바라며... 소서의 뜻인 선물 총점과 보화한 상자를 받아 주시기 바라노라...

소서의

아장 (무슨 반가운 말을 기다리는 듯 리순신의 일말을 우머히 본다.)

리순신

(엄한 소리로 크게 질책하여 말한다.) 이 무슨 어리석은 소린고? 싸움을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 때 왜놈들 맘대로 하잔 말이나? 7년 동안 우리 나라에 참류한 천만을 일으킨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악은 뉘어 두잔 말인가?... 패침하도다. 방자하도다... 돌아갈 길을 열어 달라?... 물어 보라, 우리 나라 수천만 백성들이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우리 나라 산천 초목이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우리 나라 이 피어린 남쪽 바다가 그것을 허락할 것인가, 이 터한 중점은 임진년 이후 너희들에게서 떼앗은 것으로 쓰노도 남음이 있다. 이 터한 보화는 우리에게 있어 한 푼의 소용이 없다. 우리가 일고자 하는 것은 왜장 가동청정의 머리요, 왜장들의 머리요, 바로 소서행장의 머리라고 그렇게 천하여라.

소서의 아장 하. (하고 절전공응하며 절한다.)

리순신 재물머가라.

송의립 왜적선이 편깃발을 달고, 가까이 오고 있소와다.

리순신 가만두라.

송의립 아마도 왜적의 화친사(和親使) 갈소이다.

리순신 배에 오르도록 하라.

송의립 예.(희장.)

리순신 지금 소척을 비롯한 왜장들은 저 순천 예다리에 몰려 있으나 탈아날 구멍이 없다. 독지에선 조명 대부대와 의병들이 포위 공격을 하고 있고 바다에선 우편 수군이 이토량의 물건을 지키고 있으니...

리 완 과연 독안해 든 쥐라 하겠소이다.

리순신 이제도 조천 四도를 탈라 하겠는가? 하::

모 두 (웃는다.)

리순신 허나우히 조국과 백성들이 입은 환난과 희생과 고통과 슬픔을 생각하면 소서나 가등의 목숨천으로 바인대도 비길 수 없노라. (다시 금분노의 빛이 그의 눈에 번득인다.)

△ 송 의립이 소서의 아장과 두 왜병을 데리고 들어 온다. 두 왜병은 각각 선물을 들고 들어 온다.

소서의 아장 조천 수군 리순신 장군께 일본군 대장 소서행장도노의 화친서와 총견(銃劍)과 보화(寶貨)의 선물을 드리오이다.

이 송전술 일대

명량 대첩이라 하노라.

그 후 일 년이 지났노라

백성들의 불알의 증성, 힘 입어

위력한 장비 갖추며 편전편승!

왜적은 감히 서해를 엿볼 수 없었나니

떠세는 기울어,

다시금, 남쪽 바다로 쫓긴 왜적들

패주의 길 찾아 발버둥치고 있을 때

장군은, 도량의 길목을 막고

왜장 소서 등 도적들

순천 예다리(順天倭橋)에 쳤노라.

△랑송자 퇴장.

리순신 매를 밟후라! 저게 무엇인꼬?

모 두 (바다를 굽어 본다.)

# 제九장

## 무대 밖이면

러순선, 장선의 뱃머리.

뱃머리에 러순선 장군 밑을 직하게 서 있고 그 뒤에 장수들이 서 있고 배에는 장선기, 북  
전기, 텅기들이 날린다. 장선은 전진한다.

△ 무대 일각에 랑송자 등장.

## 랑송자

아아 울들무!

배일 두척으로

적선 三〇〇여 척을 무찌른 곳

적군의 진격은 부서지고

적장마다시 또한 그 무슴 물 위에 떨어지니

장하도다 놀랍도다.

언제 청사에 빛나지 않으랴

관공신

창의별장 복수군들이 이곳 해안 투지를 지키기로 하였는바 그때는 이곳에 남아 한 습의  
왜적도 투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

기림길

알겠소이다.

리순신

들거라. 二〇〇척 민선은 즉시 우수영으로 떠날 것이며 조선소와 능장역은 일꾼들도  
우수영으로 떠날 것이며 수군 장병들은 모두 전선과 거북선에 분승하여 나의 장선을 따르  
도록 하라.

장수들

본부대로 하오리다.

리순신

이제 우리 앞길에는 천하에 다시 없는 요충들이 있노라. 일기 당천의 요충들이 있노라. 병  
법에 이르기를 한 자아비가 용맹스며우면 일천 사람을 두렵게 한다 하였으니 파시 오할 우  
라를 두고 한 말이로다. 모든 백성들은 충심으로 군사를 도와 힘 바치며 모든 장병들은 일  
호라도 군령을 어기지 말지니 이 말을 명심하여 바다를 저김의 목숨을 바칠지로다.

장수들

목숨을 바치오리다.

리순신

승산이 있다. 모두 배에 오로라.

△ 장수들 달려 나간다.

△ 호동 귀작의 소리를린다.

△ 리순신 천천히 퇴장.

리순신

우리가 왜적들을 응징함으로 유인해 들인 다음을 때를 보아 칠 것이다. 이때 우수영 앞 바다에 창자진을 쳐 놓은 민선 二〇〇척에서 산천이 떠나 갈 듯 북을 울리며 합성을 울리며 화포 소리로 터뜨리며 금시 금시 달려 나와 왜적진들을 단숨에 집어삼킬 듯 크게 기세를 올린다면 왜놈들은 손바닥 산할 것이니 이럴 때에 우리는 왜적진들에 불벼락을 퍼붓 것이다.

송의립

알겠소이다.

△ 탐후장(探候將) 남히 등장.

탐후장

탐후장 아뢰오. 五〇리 밖에서 적이 밀려 오고 있소이다.

민삼신

그때 모두 몇 척이나 되나 보오.

탐후장

삼십여 척 三〇〇척이 되어 있소이다.

민삼신

알겠나.

△ 탐후장 퇴장.

모두

(위급한 심정으로 순신을 본다.)

리순신

(잡있게) 적이 三〇〇척이건 五백척이건 겁낼 것이 없노라. 싸움의 승패는 수효의 많

고 적소에 있는 게 아니라 싸락 전술에 있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충성심과 적개심에 있노

라. 이제부터 국시 진을 응징함으로 응징한다. 의병 봉건이.

진영

외.

서물을 버릴 수 있겠는가. (적하고 파단성 있는 소리로) 생각해 보라.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가? 도 있는 것은 무엇인가?

리 완 곱할 줄 모르는 군사와 백성들의 힘이 있소이다.

리준신 그렇다. 비록 그 수효 저울망정 열 두 척의 전선이 있다. 약간의 군기도 있노라. 무슴바 저 싸우잔 백성들의 큰 기세가 있노라. 비장!

리 완 예.

리준신 민권이 二〇〇 척이라 하였지.

리 완 그렇소이다.

리준신 송군관.

송익립 예.

리준신 민선 二〇〇 척을 전선 二〇〇 척으로 쓰세나.

모 두 (반색을 한다.)

리준신 二〇〇 척 민선에 자색 군령기들은 뜻아 휘날리게 하고 창점들을 세워 번쩍이게 하고, 배

를 전선처럼 가장하여 우수영 앞바다에 즉 장사진을 치도록 하라. 알겠는가?

송익립 알겠소이다. 그런 울돌목으로 가서 싸우잔 말씀이오니까?

리준신 울돌목이다.

모 두 (양성거린다.)

리 완 미구에 또 왜적은 큰 세력으로 발령할 것이오이다.

리 순신 생각지 말라. 어려운 것만을 생각지 말라. 파도는 크고 바위는 적다. 허나 그 바위 뿌리 짙을 제 아무런 큰 파도라 해도 그 바위는 부실수 없고 넘어뜨릴 수도 없는 법이다.

리 완 허으나 지방 우덕의 전선은 도합 열 두 척 뿐이오이다.

리 순신 그렇다. 열 두 척 뿐이다. 아, 이럴 때 역기공이 살아 계셨더라면... (문득 승산의 고리를 잡은 듯) 울돌부이다. 울돌부!

리 완 울돌부?!

리 순신 울돌부는 천라우도의 독지와 진도 사이에 불린 좁고도 험한 울돌부이다.

리 완 남해에서 서해로 따지는 단 하나의 첩경. 여울진 바닷길이 아니오이까?

리 순신 그렇다. 역기사도와 함께 전술 방략을 상론하면서 지목한 곳이다.

△ 승희집, 리영남, 안위 등 장수를 등장.

승희집 분부대로 주척하였소이다.

안 위 전선 열 두 척은 모두 쓸 만하오며 열 두 척의 실은 굳기도 웅간히 쓸 만하오이다.

리 영남 장군! 어떻게 싸워야 이길 것인가? 지금 형편 저희들의 견생각이 들지 않소이다. 정녕 타일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격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리 순신 파시 어려운 형편이로다. 조정에라도 이 형편을 아시고 정녕 바다를 지킬 형세 어렵다면 독지에 올라 싸우라고 나에게 선견관을 보내 오셨다. 허나 우리가 물을 지키는 수군으로

모두 (기뻐한다.)

리준신 허나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를 생각할지 못다.

정사 망적을 세워 주시면 소장들은 무슴을 바치오리다.

공인- 어떠한 어뢰운 일인든 감당하오리다.

농민- 무삼 일인든 하오리다.

룡림 어떠한 죽을 땅이라도 겁내지 않고 싸우겠소이다.

리준신 모두 훌륭한 결심이다. 우리 군사와 백성들의 마음이 모두가 같을진대 무엇이 두려울 것인가? 오날이 탄리가 하루이틀에 끝날 때 아니므로 공인들은 배와 군기를 만들도록

차비할 것이며, 농군들 백성들은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소금 굽고 모든 생업을 그치지 아

니 하여 우리 수군을 다시 부장케 하며 백성들을 안정케 할 것이로다. 잠시 물러가 쉬도록

하라.

△ 탐후장(探候將) 급히 등장.

탐후장 탐후장 아뢰오. 三〇리 밖에 적선 五〇여 척이 올라 오고 있소외다.

리준신 알겠다.

△ 모두 퇴장한다. 비장 리완이 남아 근심스런이 있다.

리완 장군, 아무리 생각해도 후탄 수군의 형세 너무나 부실하외다.

리준신 (생각할 뿐.)

선안 一

아니오이다. 저희들만 어찌 권한 자리를 찾으오리까. 저금 우리 수군은 군량이 없고 겨울 의복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자은바, 어찌 저희들이 가만 있소리까. 저희들 때 二〇〇 척에서 살펴 보더라도 솜옷을 길어 바치기로 작정하였소이다.

리순신

(잠적하여) 구랍노라.

선인 一

저희들 소원은 오직 바다를 버릴지 마시고 왜적을 무질터 주시기만...

리순신

점적 말라.

선인 二

허어나 수군의 형세가 의로운적라 바다를 버리고 물에 올라 싸우게 하라는 조짐의 말씀이 있었다고도 하여 말들이 많사외다.

리순신

(거친 목소리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

안 위

리 봉구 우우경이 그런 말을 했나보이다.

리순신

우우가?

리영남

우우는 방금까지도 바다의 항전을 그만두자는 주장이었소이다.

리순신

우우의 비겁함은 배 이미 알고 왔노라. 그는 군사의 승책을 지고 군기를 군량을 돌보지 않고 제 한 목숨만 위하여 도망을 친 그 죄 저지 않다. 담장 잡아 치적할 것이다.

모 두

(엄숙해진다.)

리순신

(다시 음부드러운 말로) 우리 어찌 모든 어비들과 아낙네들과 떠성들의 간부한 부탁을 저버릴 것인가? 리 순신은 몸이 가루가 될지라도 바다를 지키겠노라.

리순신 아, 반갑노라. 이렇게 또 만나게 되니... 그리고 저 장정은 통질이 아닌가가?

김동길 저제 전후로 장던 의병 처우 동건의 오이다. 장군님 문안... (그역 복이 많다.)

리순신 반갑노라. 모두 식읍 속에서 살아 이긴 사람들, 그 초인들 얼마나 많았겠는가?

박문인 소인들은 그저 장군님 오실 때를 지나 깨나 기다렸소이다. 세월이 너무나 진뚫하고 야속도

하였사외다.

부인 한 말씀 드리웁니다. 저희들은 장흥(長興) 고을에 사육는데 장군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 동계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봉녀 이분들은 모두 우리 수군과 장군님께 드리겠노라 살과 곡식 자루를 이고 수백 팀이 왔다

하오이다.

리순신 진정 고맙노라. 내가 보성에서 이곳에 오는 길에 수 많은 어버이들, 아낙네들을 만났노라.

나의 손목을 잡고 말하기를 바다의 왜적을 하루바삐 물러쳐 달라 한결같이 부탁하였노라.

선인 소인네들은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로서 왜적들에게 향토를 빼앗기고 남은 가산과 가솔을

때에 싣고 장군님과 수군을 찾아 온 길인 오이다.

리순신 그때 모두 몇척이나 되는가?

선인 모두 200여 척 되오이다.

리순신 200여 척! 도항과 짐을 잃고 물 위에 살게 되니 그 또한 얼마나 고생인고? 우리 수군

은 그 배들을 보호할 것이니 우리 수군에 앞서 우수영으로 떠나도록 하라.

리순신 우지는 거북신 수리물 다그치되 오늘 밤으로 바다를 날리도록 하라.

유지 에, 하겠소이다.

리순신 물포 안호!

리영환 에.

리순신 만보는 좌 포구 어촌마다 방울 썰붙이게 하라. 삼도 수군 통제사의 명의로 한되 통제사는 바다를 지켜 백성들을 보호할지니 백성들은 모두 안심하고 제 맡은 생업에 힘쓰되 만일 백성들의 재물을 토략질하여 강기를 문란케 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무을 벨 것이다 오르게 썰붙이도록 하라.

리영환 에. (외장.)

리순신 지세.

안위 에.

리순신 그대는 지금 곧 남은 열 두 척 전선의 장비와 군기의 정황을 날달이 사실히여 파치게 하라.

안위 에. (외장.)

리순신 (북부를 마친 다음, 그제야 군중들을 돌아 본다. 감개무량한 어조로) 어머 분이 이처럼 나를 맞이해 주니 고맙노라, 진정 고맙노라, 군사들, 공인들, 농장의 일꾼들, 낮익은 아나 피를

봉 보 장군님 민천에 안녕하셨나이까? (무이 캔다.)

△ 사람들이 화수로 신장길로 달려 나간다.

△ 관호의 소리 계속.

△ 사람들이 다시금 밀물처럼 밀려 들어 온다.

△ 수군들이 거북선 앞으로 들어와 정렬한다.

수군 1 (소리쳐 말한다.) 장군께서 이리로 오신다. 여기서들 기다리라.

△ 육지를 비롯한 공인들과 농군들, 선인들이 등장하고 동진을 비롯한 장정들과 여러 사관들

이 등장하여 장군을 기다린다. 모두 흥분해서 음성거린다.

△ 장군 거북선 앞으로 등장한다. 그 뒤에 군관 장수들이 따랐다.

리순신 육지, 육지 있는가?

은 지 여기 있소이다. 장군님!

리순신 거북선 수리가 열마나 됐는가?

은 지 다른 건 다 고쳤자오나, 류왕 염초의 불마담 캐비가 떨어져 나간지라 쇠붙이를 구하는 중이  
오이다.

리순신 송군관, 때에 싣고 온 쇠붙이들을 부리었는가?

송의필 아직 부리지 않았소이다.

리순신 지금 곧 수리에 쓸 만큼 거북선에 부리도록 하라.

송의필 네. (외장.)

『박로인의 편지』 오셨나요?

『박로인』 원근이 없지요. (상수를 가리키며) 저것 보시오. 수백 명이 저렇게 쌀을 이고 목석 자루를

이고 풀떠 오고 있네요. 우리 수군과 장군께 드리자고...

『박로인』 정말 고마워요. 고마운 일이에요.

△ 박로인의 목소리 들린다.

『박로인』 오셨네요.

『박로인』 아 할아버지!

△ 『박로인』 박로인의 목소리 들리는 쪽으로 달려 간다. 선창 언덕길로 박로인들이 온다. 『박로인』 너는 박로인의 손을 잡는다.

『박로인』 할아버지!

『박로인』 『박로인』 장군께서 오신다. 삼도 수군 통제사로 부직되어 오신다. (선창 저편을 가리키며) 봐라. 저 장전에서 시방 내려 오신다. 보이느냐?

『박로인』 눈물이 자꾸 나서 잘 보이지 않아요.

『박로인』 자제 봐라 이리루 오신다.

『박로인』 보어요, 정말 장군님의 모습...

△ 저 쪽에서 노동 귀자의 소리 울린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 오른다.

△ 『박로인』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수로 달려 나간다.

김영만 (박 잘라지) 아니었다. 우주의 비정한 행동을 조정이 아신다면 당장 글부드사를 보낼 것이었다.

△ 이 더락수 편에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들린다.

야 전선이 들어온다.

다섯 적이다.

장군님이 오신다.

리 순신 장군께서 오신다.

△ 사람들이 상수에서 하수로, 물려 지나간다.

△ 안위, 만호, 천사도 급히 퇴장한다.

△ 봉녀와 중년 부인이 상수에서 정차 우로 들어와 하수를 바라본다.

봉녀 아주머니, 와요. 저기 전선이 들어와요. 정말 장군께서...

중년 부인 곱잡소. 장군께서 잡혀 가지던 날을 생각하면...

△ 부인배들이 갈자부비 곡적 박구니를 이고 들어와 상수 선창가에 놓고 정자로 올라와 비

라본다.

부인 — 정말 장군께서 오시나요?

봉녀 — 저것 보세요.

부인 — 우리는 장군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왔어요.

리영남 (난 우수형 사도를 찾아 다녔소. 그런데 어찌들 하실리오? 장군께서 오시면 그때도 바다에서 싸울 것인가?)

리영남 (칼날 칼이) 무슨 말씀이요? 바다에서 싸우지 않으면 수군이 육지에서 낮잠이나 자간 말씀이요?

리영남 (올커 어성을 높이며) 아니 어떻게 하는 말이요? 시방 진주 남원이 적들의 수중에 있어 천라우도의 육지가 위급한 이때 배도 없이 바다에서 공연한 희생이 될 게 아니라 차라리 육지에 올라 육군과 합력하여 적을 치자는 것인가? 그때 어느 편이 현명한 방략일 것인가?

리영남 그때서 우수경은 진작 한산도에 불을 지르고 물으므로 도망을 쳤는가 말이요?

리영남 그럼 거만 재산을 왜놈들에게 그냥 줘야 하겠소?

안 위 종소외다. 그러면 어찌하여 천라 좌수영의 군기 군량은 왜놈들 수중에 들지 않도록 옮겨 놓지 않았느냐 말씀이요?

리영남 (말이 막히는지라) 좌우간 두고 봅시다. 지금 바다에서 싸운다는 건 무모한 일이다. 조정에서도 그런 꼬기가 내렸단 소식을 난 듣고 있소외다. 무모한 희생을 할 자답이 없단 말씀이요. 이란계적(以卵擊石)이외다. (자기로 본던 리 회장.)

리영남 (답답한 바위를 치는 격이라)

전사 만호의 말씀이 참 지나치셨나보외다.

관인 : 합시다. 해서 안 되는 일 없으니까.

봉인 : 자 그럼 우리는 전 배설을 인 때를 찾아 가서 식량과 옷감을 구해 봅시다.

봉인 : 그것 참 좋은 말씀이요.

유지 : 어서들 잡시다...

△ 모두 퇴장.

△ 언저길로 거제 전령 안 위험 소비포 만호 리영남과 비조항 첨사 김응합이 등장하여 정자에 오른다.

리영남 : 장군께서 오신다니 이제는 우리 수군이 살았달까요.

첨사 : 그때도 우리가 아전고루한 보람이 있소.

안위 : 우리가 만일 바다를 버리고 물으로 피했다라면 무슨 편무으로 장군님을 대할 수 있었겠소.

리영남 : 난 가슴이 울렁거립니다. 이제 장군께서 우타 수군의 정편을 보신다면 얼마나 비분한 감을 가지시겠소. 이 회령포에 있는 전선이랄 모두 일괄적이요.

안위 : 이제 장전, 구마에서 다섯 척의 전선일 따났다 하오.

리영남 : 그러면 모두 열 두 척!

안위 : 장군께 우리의 정편을 세척히 말씀 드리는 수밖에 없소.

△ 우후 리봉구 등장한다. 그는 풀이 없다.

리영남 : 아 우후께선 어쩔 가셨다 이제 소십니까?

안가? 생각해 보라구. 자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이 회령포에 잔선이란 게 모두 몇척이나 되는가. 바다의 날씨는 반짝 으스스 차지는데 입을 게 있나 덕을 게 있나. 보라구, 저북선이란 저렇게 켜진 것 하나 뿐일세...

모두 (심각해진다.)

김룡익 모두 올은 말이유, 이제 모두 누구 때문원장요... 난 거제도에서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리순신 장관을 잡았노라 술을 마시며 너털웃음을 치는 왜장들, 난 소서와 마다시들 한칼에 모두 죽이지 못한 재한이의다. 시방 거제도 백성들은 무서운 구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수를 잡아야 합니다.

옥 지 올은 말이다. 자, 우리가 이편구 왔을 게 아니라 거북선도 마작 모쳐 놓고 굶기도 자꾸만 들의 법시다.

공인1 자, 인물을 시작합니다.

공인1 화포 전환을 만들자니 허가 없소.

옥 지 그건 만호께 말씀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요. 잠시... 내한 마다 하겠소. 우리에게 지금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다 아는 일이고. 그대나 이제라도 구하고 만들고 장만합니다. 농장에서 온 이들과 선인들이 우선 모두 탈변오 나쳐서 구하관 말씀이요. 이제 티순신 장군께서 오시면 우리가 무슨 일일로 띄웁겠소. 우리는 수군을 도와서 나중엔 바다를 흔 떠보우는 안이 있을지라도 마다를 지킵시다.

간장가는 고사하고 남의 색시 시집두 못가겠네.

모두 (웃는다.)

수군 一 자네가 그렇게 내 심정을 알아 주니 고맙네. 고다와... 아 한산도가 그림다!

장정 一 정말 그림소. 한산도 시철이 그림소.

농군 一 그런 소리 해야 울화만 터질 뿐이요.

공인 一 그런데 전타 우수자 배설사도는 어대로 갔소?

수군 一 우리도 모로오.

김홍길 시방 우리 수군에는 거제 성주 안위(安衛)령감, 소비포 단호리 영남, 그리고 미조항(彌助項)첨사, 이런 이들이 자기 전선한 죄책을 가지고 고군분투할 뿐이요.

공인 一 우후의 몽구 명감도 보이지 않으니 모두 겁을 먹고 도망울 친 모양이요.

수군 一 그러니 걱정이 많군요.

수군 三 생각하면 눈앞이 어둡네.

수군 一 뭐가 그리 어두운가? 인제 장군께서 오시면 다 일들이 제대로 풀릴 텐데.

수군 三 월장군님이 오신다고... 그때 시방 당장 무얼 가지고 싸우며 왜적의 큰 군사를 막는단 말

인가?

수군 一 그러니 장군께서 오시나마나 별수가 없단 말이지?

수군 三 자네 말이문다 하는 줄 아는가? 그때 한산도 부강한 시절이 하루 아침에 이루어졌단 말

고 짜운 단 말이나. 지방 할어진 군사를 모으고 전술 방략을 세워서 왜놈들을 크게 쳐부실 만 한 지휘 장수가 없구나. 통진이 배는 어찌 됐느냐?

동녀 이제 품을 얻어 출가해요.

동지 사람의 무숨이란 어느 때는 돌방을 갈기도 하고 어느 때는 무쇠 덩어리 갈기도 하고...

동녀 정말 공갈이 살아 왔어요. 무쇠 덩어리 같이.

△ 동진 젊은 장정들과 떠돌성하니 등항.

김홍길 작은 아버지,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동지 반가운 소식?

김홍길 장군님이 오신답니다.

동인1 장진(康津) 구미(仇未)에 오셨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동지 감진, 구미라 하면 오를이라 노이 뜻에 오실 수 있지 않느냐?

동인1 그러니 말이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단 말입니다.

동지 나 역시 믿어지지 않네. 장군님 소식은 하도 이터니 저터니 구구하니까 이제 난 내 눈으로 보구서야 믿을란다.

동인1 을소외다. 나 역시 믿을 수 없소. 허나 어찌든 난 믿소. 장군께서 꼭 오실 줄 믿소.

동인2 자네 말이 콩인지 팥인지 모르겠네. 믿으면 믿고 아니면 아니지 자네처럼 동네 처녀 믿다

△ 무대는 점점 새벽 빛으로 밝히 밝기 시작한다.

병사와 백성들이 하수로 달려 나간다.

△ 화포 총동 소리, 총 소리 계속 들린다.

그 소리는 드디어 점점 멀어진다. 남녘 바다의 날이 선다.

△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우저는 한 팔에 부상을 입었다.

△ 봉녀 달려 들어 온다.

봉녀 아작은 아빠지!

우저 일없다 일없어.

수군 너무 걱정할 건 없소. (우저의 팔에 천을 감으면) 상처는 그러크게 얹으니까. 자 이걸

잘 매도록 하오.

봉녀 (팔려들어 우저 팔에 천을 감아 준다.)

△ 수군은 다시 달려 나간다.

우저 봉녀야 바다가 조용하구나.

봉녀 왜곡들은 물러갔어요. 안심하세요.

우저 치입니다. 왜곡들은 또 올게다.

봉녀 정말 어때요. 싸움의 때요.

우저 어서 장군님이 오셔야겠다. 함선도 가 무너지고 삼도수군의 의뢰도 없으니 장차 무일가지

공 전라남도(자주전라남도) 남쪽 해안 화령포(會寧浦) 거북선 수리장.

무대 선창가. 상수에 파손된 거북선의 뗏머리가 보이고 그 하수층 언더진 곳에 바다 정자(海亭)가 있다. 이 정자에서 나머지 막힌 언더진이 하수로 뿔었으며, 이 길을 계선으로 하여 무대 전면 쪽은 평평하고도 아늑한 지면을 이루었고 이 길의 계선을 넘어서 저편 선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무대 속 쪽으로 바다가 보이고 그 상수에 점집한 섬들이 보인다. 무대 전면 낮고 평평하고 아늑한 지면에는 두어 군데 우등불이 있고 그 옆에 거적자리랑 깔아 사람들이 쉬게 되어 있다. 우등불 옆에는 두공 철공들의 제구들이 놓여 있다.

만이 열민관 이등 속의서

좌포, 좌공 밑저 나가는 소리.

조종 소리, 고각 소리 요탄스럼고 사람들의 합성이 들린다.

— 왜적선이 달려들었다! —

— 화포 증동을 쏘라! —

— 화살을 쏘라! —

— 물러서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

— 각저기(角指族)다. 각저기를 막아 앞으로! 왜적은 쫓아라! —

### 탕승자

△ 무대 우연 몇 명의 군관과 더불어 로양(羅梁) 바다를 바라보는 리순신。  
△ 세찬 물소리와 바람소리 일어난다。

남해 특지에 왜적이 오르도

로양 바다의 바람은 사납고

해안 성들은 함양해졌으나

이 나라 병사와 백성을 고향함이 없었노라

조국 강토를 지키며 싸우고 있었노라

회령포(會寧浦), 어란포(於蘭浦),

벽파진(碧波津), 울돌목(鳴梁)이여

너 말하라

얼마나 이 수군 명장을 기다려 불결했던가。

— 앞 전 —

## 제 八 장

四 一五九七年 八月 하순。

빈소(殯所)를 찾아 슬픔을 남기고,  
원수를 갚고자 남녘 땅으로  
백의병사는 앞으로 간다

임실(任實), 남원(南原)의 산천은 만기는 곳

운봉(雲峯), 구태(求體)를 지나

순천(順天), 두치(豆恥)의 낮익은 땅이여

초계(草溪) 진중에 화살을 쏘고

군마를 어루만지며 나라일 근심할 제

듣느니 바다의 비분한 소식!

아아 어찌 참을 수 있는가?

단성(丹城) 진주(晋州)로 말을 달리오

전라 바다의 발을 멈추니

노한 파도는 몸부림치며

우너진 수군의 흔적을 말한다.

거북선 관옥선 그 많은 배들은

어느 판포에 남아 있는가?

### 백의종군의 일

△ 광송자가 등장한다.

#### 광송자

백의종군(白衣從軍)——이는 최인의 이름으로, 한개 병사로 군사의 대오 따라 나아감을 말한다.  
오늘, 삼도 수군의 탁월한 장군은 한개 병사로 나아간다.

남녘 땅으로!

구단의 폭운이 휘몰아 날리는

남녘 바다로!

△ 무대 우연 폭운이 날리고 빗발이 절뎠다. 그 속을 힘있게 때리는 생각에 잠겨 앞으로 앞  
으로 더 순신은 걸어 간다. (무대 천천히 회전.)

#### 광송자

보라! — 五월의 빗발은 용의(戎衣)를 적시고,

六월의 우뢰는 십금을 흔든다.

화포의 소리를 바다에 들으며

물우한 세월에 가신 어머니

△정 화과 리 원의은 매우 반갑게 순신을 맞이하고 순신은 그들을 정중히 되한다.

정 타 순신 창군!

리원의 대감!

리순신 아 대감께서 이렇게 :: (정중히 인사한다.)

정 타 일들이 모두 잘못됐소이다. 순신공, 백의 중군 하람신 분부시이다.

리순신 백의 중군!

리원의 너무 괴롭게 생각지 마시요.

리순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니 황감하소이다. :: 이만 가겠소이다. (천천히 걸어 간다.)

정 타 순신공! 그럼 어때요?

리순신 싸우터 가겠소이다. 나라가 위급한 이때 어찌 지위를 가리오리까. 방자한 왜적들을 쳐부

시터 나가오리다. (리 완과 송 회림에게) 어서들 가자.

△리 순신 먼저 퇴장. 리 완, 송 회림 그를 따라 퇴장.

리원의 훌륭한 말씀이요.

정 타 장학시이다.

리원의 나는 처음부터 드림수에게 말했던 것이외다. 물에서 싸우는 일은 리순신 장군과 의논을 하라구, 그런데 일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소외다.

정탁 그래 순신 장군의 말은 믿지 않고 사정 남어신 어사나, 원군의 말만을 믿어야 한단 말이요. 도무저 어둠단 말이요. 외금부의 윤근수 매감도:

리원의 삼도수군 통제사로 원군을 보내 고집을 한 이가 또 누구오니까?

정탁 그러니 어둠단 말씀이요.  
리원의 그 강대하고 부유한 삼도수군을 원군이 들어 하루 아침에 망쳐 봤으니: 참으로 남녕바다가 위급하오이다.

정탁 이제 무너진 수군을 수습할 장수는 오직 순신공이요.  
리원의 그러나 옥중 고초에 시달린 몸이니 부락하기도 어려운 처지오이다.

정탁 더구나 북적울 하는 것도 아니고 백의 종군으로 나가는 것이니:  
리원의 난처한 일이오이다.

정탁 허나 순신공은 충성이 지극한 분인저라 말씀해 봅시다.  
리원의 참이변 일에 들어선 정탁 대감의 공이 크신 줄 아오이다.

정탁 아니요. 그전 누구의 공도 아니요. 오직 순신공은 죽이지 못한다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큰 탓이외다.

△ 리순신 다시 들어 온다. 그 뒤에 그 쪽으로 나갔던 사람들 따라 농장.

△ 육사정이 육문을 연다.

△ 순신 태연히 육문을 밖으로 나온다.

△ 송희림, 리원, 리면, 박모인 너무 기막히어 『장근년』, 『아버년』 하디 땅에 이르도린다.

**리순신** 그대들 잘 있으라. 그대들 내 뜻을 이어 비집하게 살지 말며 비부하게 살지 말며 인제나

벗뻗이 살라. 나라의 부장과 백성의 부락을 위하여 말음직한 방패들이 되라. 백절환골의 뜻을 가지고 화살이 되어 칠관이 되어 나라와 백성의 원수들을 치라. 내 죽은 것이라도 그

대들과 함께 나아가리라.

△ 리순신 형장으로 나간다.

△ 모두 순신을 따른다.

△ 모두 장군을 부르며 좃아 나간다.

△ 잡사사이.

△ 건우(典慰)이 말려 들먹 온다.

**전옥** (소리친다.) 어쩔이다. 리순신 버이지 말고 백방하람신다. (저 편에서 북창된다.)

△ 전옥 형장 쪽으로 달려 나간다.

△ 정략과 리원익 같이 등장한다. 그들은 형장 쪽을 바라보고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리원의** 다행한 일이오이다. 정녕 나라의 큰 기둥 하나를 잃을 번 험소이다.

**정탁** 내 옥숨과 바꾸면 바겠지, 그때 리순신 같은 명장을 죽일 수 있던 말씀이요?

리순신 할머님 기척 안녕하시요. 네 어머니도 편안하시냐.

리면 네 안녕하시오이다. (운다.)

리순신 네 무슨 일로 그렇게 슬피하느냐?

리면 ... 아버지님 정상 되오니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와...

리순신 (예리한 직감으로) 네 어찌 아버지를 속이려 하느냐?... 아비도 속이는 법이 있느냐?

리면 (그만 숨길 수 없는 감정을 터뜨려) 아버지 망극하오이다...

리순신 어서 말을 해라.

리면 아버지님 올라 오신 후로 조모님께선 직음을 전패하시고 몸져누우시고 마셨소이다. 제가 순

친에서 아산으로 배로 모시는 데 아버지님 고향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이르러 행돌이 무렵 잔

잔한 물 위에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소이다. 조모님은 마지막 시각까지 옥중에 계신 아버지

생각으로 몽분해하셨으며 아버지님 나오시기 전엔 결코 전하지 말라고까지 유언하셨소이다.

리순신 그만두라. 내 불효한 자식이 되고 말았도다.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옥중의 몸

이 되고 늙은 아버이를 편안히 모시려 하였으나 아버이 또한 세상을 떠나시니 애통한 일이

로다. 애통한 일이다. (말을 구른다.)

△잠사 리안도, 리면도 말을 못 한다.

크게 울리는 소리 리순신 처참이다. 즉시 형장으로 끌어 내라. (다시 복창된다.)

△서술이 서서면 복한(弑讞)을 치지 돈 형리(刑吏)들과 라출문이 동판.

술 수습하고 또 탕을 지키며 술들목을 지키는 것인가? 나라와 백성들의 부락을 위해 생사불  
 같이 하자 맹세한 공이 나를 앞서 전사하시고 삼도 수군이 무너지다니... 어 망국하도다.  
 애석하도다.

박민인 장군님 그만 기체를 보시와 고정하소서.

△ 송희림 등장.

송희림 장군님, 죄실하오이다. 원균 등제사 칠천량에서 무너졌다 하오이다.

민준신 알았노라. 그때를 급히 내려가 바다를 지키도록 하라!

송희림 휘.

△ 리완이 리편을 버리고 등장.

리완 이 일을 또 어찌면 충단 말이나? (조용히)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

송희림 아 노령님.

민준신 게 누가 왔느냐?

리완 편이 왔소이다.

민준신 편이?!

리면 (우창으로 가까이 가서) 아버지! 우창 기체 안녕하시오니까... 아버지! (그만 운다.)

민준신 네 어찌서 오느냐?

리면 아산 집에서 오는 길이오이다.

리순신 (박 로인을 본다.)

박로인 파다로 나가신 후 칠천도(柒川島) 싸움에서 그만 전사하셨소이다.

리순신 뵈었어? 그 소리가 참인고?

박로인 소인에게 그 글월을 주신 저 며칠 후입니다.

리순신

(편지를 펼쳐 읽는다.) 운산 천리요 창해 만리라 진중에 매인 몸 뜻대로 뛰여 가 뵈옵지 못하고 억울히 갇힌 여해의 정상 눈 앞에 그리매 오호통재라, 월명하 기머기 소리 조차 애를 끊고 피눈물 구구 간장을 적시여라 광음이 덧없어 여해 가신 지도 어언간 수순!

그 동안 원 통제사 공사를 짓혀 놓고 우후리 몽구와 더불어 주색잡기와 후렴질로 일삼으니 수하 장졸이 흩어지고 발령이 서지 않고 군졸이 해이할새 이는 즐춧적의 노리는 배라 천하질관 거부선과 수백 전선이 적에게 부서지고 삽시에 삼도 수군이 그 형해만 남으니 망극하야라. 이제 창생은 어이 왜적의 어육을 면할 것인가. 뜻있는 장병과 의병들이 고군분투하며 부르느니 리 통제사! 어서 오시라 반드시 돌아 오시도록 이 여기 거듭 장계를 올렸사오매 한산에 다시 뵈을 날 바라오며, 왜적 도해로에 오만한지라 각편 해전으로 나가노라.

박로인

∴ 그 글월을 주신 후 칠천량 싸움에선 수많은 장병들이 전사하였고 여기 사도께선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하시다가 저들에게 포위되어 그냥 배 위에서 마지막 자결하셨소이다.

리순신

어어 이 무슨 청천벽력인고. 우리 수군이 ∴ 여기 사도가 ∴ 이제 어떤 장수 있어 우리 수군

△ 락완, 총회립 달려 나간다.

리순신 꿈이라 하여 지라...

△ 박로인 옥사정에게 인도되어 급히 들어 온다. 옥창 앞으로 간다.

박로인 장군님!

리순신 누군고?

박로인 문안 드립니다.

리순신 (아주 반기며) 오, 박로인!

박로인 (눈물을 머금으며) 옥중 기체 어떠하시오나... 장군님...

리순신 그때 무슨 일로 왔소? 그 먼길에.

박로인 거북선에 쓸 석류황(石硫黃)을 한 二〇〇근 구하러 온 참이올시다. 그뿐만 아니라 장군님

외속자... 지방 옥문 밖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야 단을 입니다. 우리 장군님 처형하지 못한다...

리순신 그때 조선소, 군기창, 그리고 농무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잘 있는가?

박로인 네, 모두 잘 있습니다.

리순신 봉녀와 동질로도 잘 있고?

박로인 네, 그리고 참여기 락완의 글철을 가져 왔소이다.

리순신 (반기며) 역기공의 글철을? 어디...?

박로인 그런 락완기 사도께서는... (목이 번다.)

편지금 쓰는 첩보보다 더 강하며 길기고 깨지지 않으며 나무에 못지않게 가벼운 첩갑을 만  
들 수 있지 않겠는가?

리 원 색로운 야철술(冶鐵術)입니다.

리준신 그렇다. 옥지와 조선소 공인들과 더불어 궁리해 보라... 그때들이 이 창업을 계승하여 완공  
하기 부탁하노라.

리 원 완공하오리다...:

리준신 나도 아 옥중에서 목숨이 지탱하는 날까지 생각하겠노라.

송희합 장군님! 몸을 돌보시와 진지를 드셔야 하오이다. ...진작 백척 간두에 진일보(百尺竿頭)  
에 進一步)라 하시지 않으셨소이까.

리준신 때 자 이 되는 때 끝에서 한 발작을 더 나아간다! 옳다. 어찌 한 발작 뿐이겠는가?

△ 이 때 밖에서 떠드는 소리!

— 조선 수군이 무너졌다.

— 삼도 수군이 무너졌다.

△ 옥사정이 튀어 들어 온다.

옥사정 조선 수군이 무너졌다 하오.

모 두 (놀란다.)

리준신 이 무슨 소리고?

이 옥중에 가둬야 할 것이며, 남의 나라를 침범해 들어 온 가동, 소서, 마다시와 같은놈들을 잡아 만국 사람들을 앞에서 처벌할 것이어 할:

리 완 반드시 그럴 때가 올 줄 믿소이다.

리 순신 싸워야 한다. 이겨야 한다. 만일 물욕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작 一〇만 양병(養兵)이라도 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케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였다면 왜적들이 감히 덤비지도 않았을 것이다. : 이것 봐라, 이리들 가까이 : (창살을 내다본다.) 아 : 거기서 라두 자세히 들게, 나는 여기 들어와 (수군 방비지책을 생각하고 거북선에 대하여 중탄해 보았네.)

리 원, 송희립 (장군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인다.)  
리 순신 지금도 철갑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거북선의 물동아리를 원통 철갑으로 찬다면 얼마나 더 든든하겠는가?

리 원 철갑선?!

리 순신 명실공히 철갑 구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송희립 그러면 그 중량을 어찌 하옵니까?

리 순신 중량! 그건 걱정 없네. 몸집이 크고 중량이 무거운 놀일지라도 바다 속을 화살처럼 달리는 큰 고기들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리 완 바다에는 큰 고래가 있고 하늘에는 크고 빠른 새도 솔개가 있습니다.

리 순신 그렇다. 요는 중량이 무거운 무쇠라 할지라도 철을 붓고 다름에 있어 새 방법을 찾아 낸다

송희립

리순신

(지칠은 소리로) 내 성질을 알면서 어찌 그런 생각을 하는가? 그렇게까지 비루하게 진저야 할 이 순신의 루름이란 말인가?

리원

리순신

(잠시 조용히 앉았다가 매우 부드럽게) 젊은 그대들에게 말하느니 내 이 옥중에 들어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많은 것을 깨달았노라. 이 험한 방바닥이며 퇴락한 벽이며 음산한 옥장이며 창 밖으로 보이는 황계한들의 잡초이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이 산다는 것파 주는다는 것을 생각했노라. 어떻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어떻게 죽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인가? 바로 이 방에서 부끄럽게 살기를 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보람 있게 죽기를 생각한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담양(潭陽)에서 일어난 의병 대장 김덕령(金德齡)은 얼마나 용맹스럽고 애국심이 열렬한 장군이었던가?

송희립

리순신

삼남 사람들이 그를 신장(神將)이라 하였고 왜적들이 겁을 먹은 장수오이다. 바로 그 훌륭한 의병장이 바로 이 옥에서 죽었노라.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 불과 몇 달 전에 죽었노라. 그는 왜적들을 쳐 나라를 평정치 못하고 죽음을 한탄하였다 한다. 익호(翼虎)! 날개 들친 범이란 두 글자가 이 벽 위에 써여져 있다. 이 두 글자의 깃발을 날리며 그는 싸웠으나 진정 날개를 펴 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노라. 애석한 일이다. 나라와 백성들에게 해와 독을 끼치는 자들, 애국지사들 모함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완이도 함께 떠나겠지.

리 완

송의립

원 중재사 저희들 군관 장수들을 파직시킨 탓으로 한 때는 어찌 할 바를 몰랐사오나, 장 군님의 말씀 지키여, 장법들이나 백성들이 모두 자기 직책을 찾아 충성을 다하고 있사오 이다.

리순신

그말노라, 그마운일이노라, 시방 왜적의 경세어떠하냐.

리 완

시방 왜적은 수록병진의 큰 기세로 한산 거진을 함물코자 덤비고 있으며 음들의 육군은 경주, 밀양, 대구를 향하여 침공을 시작했소이다. 음들의 공세에 대처하여 우리 조 명량 군은 서울서 남진하고 있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적개심에 들끓고 있습니다.

송의립

하오나 한산도의 원 군사도는 왜적 방비의 전술 방략이 서지 못하고 모른 처사가 옳지 못하므로 수군들의 마음이 불안한 중에 있습니다.

리순신

리익기 사도께 내말을 꼭 전하게. 내 떠나올 때 한 말을 다시 한번 부탁하노라노, 틀 있는가?

송의립

틀렸소이다. 마지막 떠나는 길에 류성룡 대감과 정 탁 대감을 뵈옵자 합니다.

리순신

무슨 일로.

송의립

(일부 대답을 못한다.)

리순신

유충에 있는 나를 위해서 우정 대감들에게 청을 병간 말인가?

리순신 (잡교대로 웨친다.) : 서풍이 분다. 물때가 좋다. 견적이 다. 대장군 살을 썬다. 천자총봉 (天子銃筒)을 썬다!

△ 옥자정, 옥문을 열고 들어가 리순신의 목에서 칼을 빼여 놓는다.

리순신 옥자정!

옥사정 예.

리순신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사정 글썽을시다.

리순신 나무로 만든 그 칼일세, 허!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만지는군. (어깨를 두드린다.)

옥사정 (조용히 옥사 밖으로 나간다.)

△ 송희립, 리완 옥창 앞으로 달려 간다.

참을 수 없는 감정이 다.

송희립 : 장군님!

리순신 (고개를 들어 눈을 떠 살핀다.) 누구냐?

송희립 비장파 군관 송희립이올시다.

리순신 오, 왜 또 왔는꼬?

송희립 비변사(備邊使)에 공부가 끝났지라 곧 우수영으로 떠나보자 하와...

리순신 한시가 바쁘노라. 어서 진중으로 달려가 바다를 지키라. 내 녀리는 말고 나아가 싸우라,

깊이 생각는듯. 두 사람은 다시 욕창으로부터 소리 없이 물러선다.

송희립

아아, 정녕 장군님의 저 모습 차마 볼 수 없소. 한산도에 계실 때 얼마나 바쁘셨소. 윤주당에 계신가 하면 조선소에 계시고 조선소에 계신가 하면 선창에 나가시고... 지금 저렇게 앉아 계시니 얼마나 속에서 땀이 나시겠소.

리원

결국 왜놈들에게 좋은 일이다. 장군님이 잡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왜놈들은 잔치를 베풀고 술을 마시며 춤을 추었다니... 기가 막히되다.

송희립

『장군께서 잡히어 올라 오실 때 삼남 백성들은 길목마다 불러들여 수레채를 거머잡고...』  
『사도님 어떨 가시오... 왜적은 어찌 하고, 삼도 수군은 어찌 하고 장군님, 어떨 가시오...』  
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많았다오.

리원

현제 조정에서는 남이신 어사의 사실 장계만 믿는 모양이니...

송희립

정녕 이리구만 있을 수 없소. 류성룡(柳成龍) 대감을 좀 만나 뵙는 게 어떻겠소?

리원

유대감은 우리 장군님을 타발 친거한 분이라이 번일에 들어서 간참하시기 거부하실 것이요.

송희립

그러면?

리원

지중추부사(知中樞府使) 정락(鄭絜) 대감이 가장 원로이며 강직한 분이자 그 분이 나서 주신다면 모르되... 아니라 우정 찾아가 뵙는 것이 장군의 뜻과 다른지다...

송희립

부은 말씀이요. 장군의 생사가 달린 이 마당에...

있다.

△잠시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

△전옥(典獄) 등장.

전 옥 (옥창 안을 들여다 본 다음 조용히 옥사정 앞으로 온다.) : 애석한 일이다.

옥사정 아니 그럼 기어이? :

전 옥 한 시간 후에 처형하라는 본부가 내렸다. 잠이 깨시거든 부의 칼이나 벗겨 드려라. 잠이나

마 편히 계시다 가시게.

옥사정 : 예. (호린 목소리다.)

△전옥 퇴장.

△잠시 후 리완, 송희림 등장. 그들은 평복을 입었다.

리 완 (옥사정에게) 좀 어 떠시냐?

옥사정 아직도 식사를 잘 안 하시오.

리 완 (송희림을 보며) 국문을 당하신 후에 수척하신 듯하오.

송희림 남지도 못하시고, 누워서 주무시지도 못하시니 : 한산서 한양까지 람거(濫車)에 끌려오

시고 또 혹독한 문초를 당하신지라 벌써 다른 이 같으면 기진하셨을 것이요.

△두사람 옥창 앞으로 소리 없이 다가 서서 안을 본다.

순신은 여전히 부동의 자세로 머리를 약간 숙인 채 눈을 감고 앉아 있다. 자는 듯 무엇을

어서 잡아라. 살인자를 잡아라.

△ 왜장들 칼을 빼들고 달려 나간다.

△ 폭음은 더 크게 울리고 화광은 더 충천한다.

— 일 전 —

## 제 七 장

때 동년 4월 초순.

곳 한양, 외금부(義禁府)의 옥중(獄中)。

무대 상수전에 옥사(獄舍)가 있고 그 왼편에 황폐한 뜰이 있고, 그 정면 안쪽에 담장이 둘러 있고, 그 담에 문이 열려 있다. 이 문을 통하여 외부로 드나들며 그 상수로 외금부 전옥서(典獄署) 등으로 통한다. 옥사에서 하수 담 밑으로 언덕이 있는바 이리 올라 사형장(死刑場)으로 가게 된다. 옥 뜰에는 잡초가 스산하다.

### 이 단편

옥중에 리순신 칼을 쓰고 자는 듯 앉았고 옥 뜰 한옆에 옥사정이 서성거리며 옥사를 지키고

마다시 당장 한산도를 칩시다.

소서 우리의 작전은... 이미 가등과 합의한 것. (소서를 중심으로 모인다.) 나도 이번엔 바다로 쫓겨갈 것이다. 첫째, 무프 전라도, 둘째, 무프 서울, 우리는 한산도를 치고 남해 쪽에서 나는 특지로 올라 전주와 남원을 쳐 올라갈 것이고 당신들 수군은 전라도 우수영을 부시고 서해로 진격할 것이며 가등은 대구 밀양을 치고 전라도 전주로 진격할 것인바 우리는 모두 전라도를 점령하고 한양으로 총진군할 것이다. 어떤가? 마다시, 이번만은 어찌 없이 한강에서 만나야 할 것.

마다시 (곰처럼 식식거리며) 한강이 아니라 대동강, 압록강에 먼저 올라가 기다릴 것이요. 절단코 이번만은, 이번만은...

△ 이때 가까운 곳에서 화광이 일며 좌약 터지는 폭음이 울린다. 사람들의 함성을 들린다.

마다시 이 무슨 소리냐?

왜병1 (말려들어 온다.) 대장도노, 우리 군기고네 어떤 놈이 불을 붙소이다. 아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소서 (노기가 치바쳐) 야 이 놈들 여기도 허제비만 있느냐? 어서 불을 꺼라.

△ 왜병2 말려들어 온다.

왜병2 아뢰오. 요시라자마 어떤 놈에게 죽었습니다.

소서 뭘이? (미친듯 소리친다.)

마다시 제집이다, 야들야, 제집들을 데려 오너라.

△ 초병이 뛰여 나와 『헛』하고 다시 뛰여 들어 노비들을 데리고 나온다.

△ 전령병(傳令兵)이 뛰여 들어 온다.

전령병 마다시 도노, 부산진에서 소식이 왔소이다.

마다시 무엇이나?

전령병 부산진 병기 창고에 불이 붙어 수 많은 군기가 재가 됐다 하오.

마다시 무엇? 재가 됐어?

△ 무각에서 소서 등 모두 나온다.

소서 무슨 일인가?

마다시 부산에서 병기 창고가 다 탔다외다.

소서 뭣이? 부산의 병기 창고면 이제 무엇을 가지고 싸운단 말이야, 그래 어떻게 불이 났느냐?

모두 허제비들만 지켰단 말이냐?

전령병 조선 의병과 그곳 백성들이 한 것이라 합니다.

마다시 모두 죽어야 한다. 의병과 백성들과... 군사들... 리 순신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한다.

소서 이제 는 더 기다릴 것 없이 칠 것이로다.

△ 이럴 때 두 노비 슬며시 피해 나간다.

△로인 먼저 나간다.

△롱길은 투각 뒤 그늘로 숨는다.

△잡시 사이.

투각에서 소저와 요시라 나온다.

소 서 요시라, 승산이 있는가?

요시라 리 순신을 잡은 이 요시라의 지혜를 믿지 못 하겠소이까?

소 서 믿는다. 그대의 훌륭한 술책을 믿는다.

요시라 소저도노, 그럼 이번엔 한양에서 주연을 베풀시다.

소 서 좋다, 명심할 것은 리 순신 다시금 살아 나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조병 양군의 전술이  
무엇인가를.

요시라 넘어 마십시오.

소 서 그럼 또 천금의 소식을 기다린다. 몸 조심하라.

△ 소저 투각 앞으로 들어 간다.

△ 요시라 친천히 방장을 쓰고 투각 뒷길로 들어 선다.

어두운 그늘에서 롱길이 나타난다. 그의 손엔 창도가 번쩍한다. 그는 요시라를 불의에 습격한다.

어둠 속에서 요시라의 약간한 비명이 들린다.

△ 투각 앞에서 마다시 소리를 쫓겨 지르며 나온다

로 인 아니요, 노인장을 보시오.

△ 이럴 때 루각에서 내려 오던 두 노비가 광경을 보고 수군거린다.

초 병 (노비에게 손짓하며) 한잔 없어?

노 비 二 (웃으며) 오라고 손짓한다.

초 병 (로인에게 증패를 빌어 주며) 예서 어플거리지 말고 어서 가져라.

로 인 (가려고 일어 난다.)

△ 노비 상수로 나간다. 초병은 노비의 뒤를 따라 나간다.

△ 김룡길 나무 그늘로 등장. 로인 옆으로 와서 그를 돕는다.

김룡길 할아버지 여기는 위험합니다.

로 인 저 늑대를 쳐먹고 웃는 소리를 들어 보게. 이가 안 갈리나.

김룡길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르는 것이 군기와 군량입니다. (온근한 소리뜨) 불

을 지웁시다.

로 인 (놀라며) 불을?

김룡길 창포에 갖다 쌓은 다음 한꺼번에 불을 지르면 달쌈이요.

로 인 알겠네. 그렇다면야 꾸물거릴 게 아니라 빨리 가야겠군. 어서 가세.

김룡길 먼저 가십시오.

△ 왜장들의 웃음 소리가 들린다.

요시라

은밀히 사람을 놓아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원 군은 한산도에서 벌써 술과 제집에 파들려 리  
순신이 개미 금랍처럼 쌓아 놓은 거만의 군사 밀첩을 탐진하기 시작했으며, 군사와 백성을  
술과 구잡이로 정벌하며 군기가 문란하여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하외다.

소서

하... 들어 보라.

한산도의 판문은 안으로부터 열려진다. 리순신! 암초 하나는 부서졌다. 자 술을 마시자.

△ 소서 두각 삼수로 들어 간다. 모두 떠들며 느를 따라 들어 간다.

△ 주연장에서 떠들며 웃는 소리 들린다.

△ 두노비가 술과 안주를 가지고 등장하여 두각으로 올라 간다.

△ 하수 저편으로 강제 부역에 끌려 나온 사람들이 지나간다.

△ 한 토인이 집을 지고 가다 하수 나무 그늘에 와 쓰러진다.

△ 두각에서 웃음 소리 다시 들린다.

△ 초병이 토인 앞으로 달려 온다.

초병 누구냐?

로인 아, 부역에 나온 이 뜻 백성인데 기운이 지쳐 좀 쉬는 중이외다.

초병 증패(證牌)를 보자!

로인 (증패를 꺼내 보인다.)

초병 (증패를 보면서) 이것은 가짜가 아니냐, 가짜다.

에 앉아서 촉패를 들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도이 바다 문어귀에서 어를 거리고 있으니...

마다시 지금이라도 늦은 것은 아니외다.

등 당 나는 리순신이 가등을 잡으려 큰 바다 가운데로 나를 쫓아 민었외다.

협 판 나도 민었외다.

요시라 허나 리순신은 누구의 말도 믿지 않았습니라.

등 당 만일 리순신이 나왔더라면 우리는 부산서, 응천에서, 거제에서, 대마도에서 四방으로 달려 나가 리순신을 바다 가운데서 포위하고 조선 수군을 불메시키고 리순신을 잡았을 것이요.

이요.

요시라 리순신은 우리 일본의 전술보다 한 수 더 봤습니라.

소 서 그러나 리순신은 왕명을 거역함으로써 자기 자신이 죽음의 길로 들어 갔소.

요시라 리순신은 지방한양의 금부 우중에 감혀 있으며 이제 리순신은 추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라.

소 서 그러하다. 이것이 바로 나의 둘째 화살이다. 격물로 하여금 겨울 잡게 한 모책!

요시라 전라도의 병장으로 유명한 김덕령이 죽었습니다. 이는 아주 우리 일본 류군에게 있어 유리한 것입니다.

리한 것입니다.

소 서 원균이란 위인은 어찌 됐느냐?

에게 무척은 치욕과 고통을 주었다. 아장, 말해 보라, 묘시라, 말해 보라. 우리는 그 날 밤 평양 피동장을 어떻게 건넜는가?

아장 피동장을 구멍의 대장도 노 자신이 하마트면 아주 들어갈 번했소이다.

소서 빛을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다. 4년이 넘도록 결국 이렇다. 나의 치명상이다. (결론적이며 오라가 락한다.)

묘시라 행주산성에 일본군의 참패는 어찌하였소이까. 실로 아비규환의 주점의 구렁이였소이다.

소서 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가? 만일 일본 수군이:

마다시 (참다 못해) 그것은, 리순신이 거느린 조선 수군이 만만치 않으며 거북선이란 놈이 무서운 불스길을 뚫으며 달려드는 때문이었소.

등당 실로 거북선이란 이전 총알도 먹지 않고 화살도 먹지 않고 불로 태울 수도 없고 썩전술잡고 기어 오를 수도 없고:

소서 용렬한 소리 그만두라, 한산도 앞바다에서 당신들은 어찌 되었는가? 9천 명의 불은 피가 바다에 흐르지 않았는가?

마다시 아 울화병이 생기고 말았소이다.

협판 허지만한 번실수는 병가 상사라 하였으니 지금도 늦지 않은 줄 아의다.

마다시 옳다. 지금이라도 나의 울화병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의다.

소서 만일 당신들이 제때에 피동장으로 올라 왔다면 우리는 지금쯤 벌써 만리장성을 넘어 연경

소서는 다리를 절뚝거린다.

소서 소서의 술책이 어떠한가? 이 소서의 술책이 어떠한가 말야.

마다시 훌륭한의다. 정녕 한신(韓信)이외다.

등당 아니요. 제갈량(諸葛亮)에 못지않소.

소서 리순신을 잡았다! 하:

왜징들 하:

소서 이번 일엔 요시라의 공이 크다. 침지 요시라, 하:

요시라 과연 두 개의 화살 증엔 한 놈이 들어 맞았습니다. 나는 경상 우병사를 가까이 할 수 있었

으며 경상 병영에서 원교이도 알게 되었으며 그들은 모두 나의 말을 믿었습니다. 나의 술

책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소서 정녕 두 개의 화살이었다. 어느 놈이든 맞도록 고심조사하였다. 평양성으로부터 4년 동

안... 지금도 생각하면 분하다. (표독한 태도로 무자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본다.) 바로 이

바닷길이다. 나는 평양에서 일백 팔십일 동안을 기다렸다. 그런데 당신들 마다시, 도도

다 까도라, 와 끼자까 당신들은 무엇을 했는가?

마다시 (불만이 있으나 말을 못한다.)

등당, 첩간 (역시 말을 못한다.)

소서 수륙병진의 계획은 한 장의 휴지로 되었다. 아니 휴지가 아니라 당신들 해군의 물체는 나

곳 거제도(巨濟島) 왜적의 강점 주둔지.

무대 바닷가, 경상 우수영의 어느 한 무각이 있는 곳. 상수에 무각의 일부가 보이고, 층계 아래 평평한 마당. 마당 하수에 나무들이 서 있고 그 저편에 성곽이 보인다.

무각과 마당 일부에는 왜적의 포장들이 쳐 있고 또 기치들이 서 있어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기이하고 살벌한 풍경을 이루고 있다. 무각의 일부는 넓은 편이나 그보다 더 큰 무마루가 보이지 않는 상수에 있다.

### 막의 어둠

초저녁 무렵. 으스스달빛에 바다가 흰히 내다보인다. 지금 상수 무각 보이지 않는 곳에 구연을 차리기 위해 노비들이 술과 안주를 들고 무각으로 올라간다.

일본 초병이 하수 쪽에서 들어 왔다 나갔다 하며 보초를 보고 있다. 왜병 몇이 수군거리며 지나간다. 하수 굽은 길로 강제 부녀에 동원된 거제 백성들이 집을 지고 지나간다. 왜병이 『빨리 하라』 『빨리 빨리 하라』 소리를 꽤 꽤 지른다. 노비들이 무각에서 다시 내려온다.

△ 무각 뒷길 쪽에서 왜장들의 웃음 소리가 들려온다.

△ 두 노비를 급히 퇴장.

△ 소서(小西), 마다시(馬多時), 동양(藤堂), 협관(脇坂) 등 왜장과 요시타와, 소서의 아장(亞將)이 기고만장해서 등장한다.

로 떠나게 되니 발걸이 더 무겁소이다. 마음이 더 무겁소이다.

어머니

：나는 이게 꿈이라고 생각한다. 꿈이 아니꼬야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나는 네가 장군으로 떳떳이 잤다가 떳떳이 돌아올 줄 믿는다. ； 한 가지 섭섭한 것은 한 가지 애절한 것은 내 손수 전복을 입혀 싸움 마당으로 보내지 못하는 게 ； 가슴 아프다 ； (강강한 목소리, 허 나무에 댄다.)

리순신

어머님, 바람이 불니다. 어서 들어 가십시오. 어서 들어 가십시오.

△ 바람과 파도 소리가 크게 들린다.

△ 리순신은 그야말로 떳떳한 자세로 사람들 사이를 걸어 나간다. (무대 천천히 회전한다.)  
부두 광장에 수군들이 창점을 열고 있고, 백성들이 햇불을 들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비복에 찬 기상이며 어떤 사람들은 눈을 핏기도 한다. 그 사이를 리순신 장군은 수군의 기등과 같이, 루지의 상징과 같이, 천천히 천천히 걸어 간다. 모든 불의(不義)를 쓸어 엮으려는 듯 바람과 파도 소리가 휩쓴다. 햇불 속으로 리순신 장군은 나아간다.

—막—

## 제 六 장

Ⅳ 전장에서 얼마 후 三월 초순.

군으로 지켜 주시기 바라와이다. 그리고 이 한산도에서 일 보도 뒤으로 물머서지 않도록...

리언기 명심하겠소.

리순신

우후는 우선 진중에 있는 군량미, 십만석, 화약 四천근, 그리고 모든 전함들과 거북선 一〇〇척 그리고 모든 총포를, 모든 군기와 기를들과 오늘 저지 않게 부강해진 삼도 수군의 모든 재산을 바집 없이 원 통제사에게 전장(傳掌)하도록 하라.

우후 예.

리순신

(군중을 향하여) 삼도 수군 장병들 의병들, 조선소 군기창의 모든 일꾼들, 능무장파 엄정의 모든 일꾼들, 고기잡고질그릇잡는 백성들, 임진년의 모든 승전이 그대들의 힘이었소. 오늘 우리 수군의 위력한 것이 모두 그대들의 피와 땀이었노라. 이제 쿠난을 당하여 왜적 술을 몰아 내는 싸움에 한층 힘을 바치며, 자기의 직책을 지켜 목숨과 보려울 아끼지 않음이 그대들의 충성이로다. 다시금 부탁하노니 그대들의 장한 충성으로 한산술 지키고 왜적은 몰아 있다는 큰 승전의 소식을 듣는다 면 내 옥중 고혼이 될지라도 원한이 없겠노라. 부디 상대 선조를 보부더 물려 받은 승승장구의 슬기를 한층 떨치기 바라노라.

모두 명심하오리다.

리순신 (마지막 어머니를 향해 인사할 드린다.) 어머니!

어머니

(순신의 앞으로 걸어 간다. 애절한 마음을 이길 수 없다 하여 절코 허겁지겁하지 않으며...) 어머니!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모처럼 한산섬으로 저를 보러 오셨는데 이렇게 면피

△ 그제사 라장은 오라를 던지고 라출들은 순신을 묶는다.

리순신 아아 어들도다, 어들도다, 왜적을 앞에 두고, 싸움을 앞에 두고, 아아 어들도다.

숨희림 아무리 어들이로니 실마이 될 수 있단 말이요.

박묘인 안 되오이다. 안 될 말이되다. 우리 백성들이 모두 보충하되다. 카마귀가 잘매기 된다 해도 장군님의 충성은... 우리 장군님 잡아올려서 춤출 놈들은 왜적들이되다. 왜놈들 뿐이 되다.

백성들 음소외다.

음소외다.

왜적들에게 좋은 일이되다.

리 완 장군님 안 계시면 삼도 수군을 어이하며 이 한산 거진을 어이하리까.

리순신 (크게 꾸짖듯) 이 무슨 소린고. 삼도 수군이 어느 한 장수의 힘으로 있는 것이며, 이 한산

거진이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가, 나를 너무 생각지 말라. 한 사람 순신을 너무 생각지 말라.

△ 모두 정숙해지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흐느낌을 참지 못한다.

△ 리 역기 등장.

리역기 (놀라며) 아니 대감!... 대감의 충성이 하늘에 사무치거니... 이 일이 웬 일이요.

리순신 열감! 임진 계사 이후 더욱 철응성으로 이륙해 높은 삼도 수군! 보다 역세고 부유한 수

수군 통제사로 봉하랍신 전갈이요.

△ 선전관 퇴장.

△ 모두 아연실색한다.

△ 무거운 침묵이 흐른다.

리순신 (태연한 음성으로) 우후는 죄인과 병부를 내놓으라.

△ 우후는 죄인과 병부를 운주당 대청의 상에 받쳐 내놓는다.

△ 조선공, 제종수, 공인들, 농군들 한옆에 등장.

△ 우편에서 장군의 어머니 등장한다. 리 완이 달려가 부축한다.

밖에서 큰소리 금부도사(禁府都事)요.

△ 금부도사와 서리(書吏), 라장, 띠출들이 우르르 등장.

도사 어명이요. 피역 죄인 리 순신 잡아 올리라는 어명이요.

어머니 (도부도 놀라와) 순신아!

리순신 (목석처럼 선 채로) 어머니!

반포인 오 이게 웬 일이 오니까, 조정의 처사가 이럴 수 있소위까. 못 하의다. 우리 장군님 무슨

죄가 있어 잡아 올리의까, 못 하의다, 못 하의다.

라장 (오라를 잡고 주저한다.)

도사 (라장과 띠출들에게 소리친다.) 똘들 하느냐?

남이신 리순신 장군을?

송희립 거제 소저 집에 보면 의병 적후 김 문길의 첩보가 왔소이다. (첩보를 올린다.)

남이신 (말아 워고) 모를 소리다. 어찌 이 첩보를 정확타 믿을 수 있겠는가?

리원 만일 이 첩보를 믿지 못하신다면 중요한 것은 왜적 소저의 총계를 알게 있는지라 반감요 시라를 잡아 문초해 주시기 바라오이다.

남이신 모든 의견은 들어 두겠노라. (자리를 일어 나며) 허나 조정의 경을 거역한 사실, 친재일우 의 기회를 놓친이 두 가지 사실만은 무엇으로 감출테요? 대감!

리순신

지금 리순신의 실기가참(失機可斬)으로 대감(大監)은 물론, 막성 같은 선비들이 상소해 왔소. 이래도 대감의 죄를 가릴 수 있겠소.

리순신

(단호히) 리순신 한 사람의 복은 아까울 것이 없소마는 흉악한 왜적의 잔계에 빠져 삼도 수군을 망치며 나라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수는 없는 때분이이다. 이것만은 가릴 수 없소이다.

남이신

어 놀랍소이다. 파시 한산도는 벌천지요. (홀췌 회장.)

△ 선전관 등장.

△ 리순신 의태로써 그를 맞이한다.

선전관 (큰 소리로) 전갈이요. 삼도 수군 통제사 리순신은 파직이며, 충청 병사 원균사도, 삼도

리순신

첫째로 가동청정이 십오만 대군을 몰고 바다를 건너오에 있어 그 함선만 하여도 천 척이 넘을 게고, 임진년과 달라 불산, 부산, 거제 등에 저의 소굴이 또한 있는 지라, 우리 수군이 가뵈이 나갔다가 앞뒤로 적을 만나 크게 패할 염려 있는 것, 둘째로 우리 수군이 이제껏 편편 승을 한 것은 바다의 지리와 조수를 잘 리용한 데 있었는바 이를 헤아리지 않고 망망한 바다로 쫓아 나아감은 싸움의 방략상 어리석은 것, 셋째로 요시라는 원래 적장 소서의 반간인 지라, 그가 어떠한 충성을 맹세한 달지라도 반간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 또한 반간이 그렇게 감언리설로 유인할 때에는 반드시 무슨 흉계가 있는 것, 이러한 사유로써 절단코 나갈 수 없었소이다.

남이신

리순신

남이신

그렇게 요시라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면 경상 후병사나 도원수 대감은 모두 흉신이란 말이요? (단호히) 저의 술책에 속은 게 분명하오. 속았소이다, 도원수 대감까지.

(큰 소리로) 이 무슨 말씀이요? 추다니? 소서와 가동이 서로 원수지간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어떠한 수단도 가리지 않고 가동을 없애자는 소서의 계책을 그대 우리가 리용할 수 없단 말이요? 가동청정이 바다를 건너오다 해도 압초예 걸려 七일 간이나 머물러 있었다 하는 데...

리순신

남이신

(구태여 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의담되이 한 말씀 아뢰오. 소서는 가동을 죽이고자 한 게 아니라... 실상은 리순신 장군을 없애고자 한 것이외다.

원균 (재자로 나가면) 아오래간만일다. 한산도!

△원균 회장.

남이신 여봐라!

△우후, 군관을, 제장들 등장.

남이신 리순신 사도 들시래라.

△리순신 등장.

리순신 원로에 일마나 피로하시오니까? 상감마마의 문후 아 되오.

남이신 대감, 나는 어명을 받고 왔소. 시방 상감마마께서는 진노하여 계시오. 무슨 일로 가동침

정을 잡으려 나가지 않으셨소?

리순신 (잠시 침묵을 지킨다.)

남이신 어서 그 사유를 말하시오.

리순신 그 자세한 사유는 이미 장계로 올렸사오.

남이신 대감의 장계는 오히려 상감마마의 진노를 크게 하였소. 첫째로 어찌 조정의 명을 거역하

였느냐 말씀이요.

리순신 이 나라의 국록지신(國祿之臣)으로 조정의 명을 거역코자 한바는 결코 아니외다. 오히려

타와 패성과 수군의 명백과 아울러 싸움의 태극을 보아 부득이 나가지 않은 것이외다.

남이신 그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이요?

량과 군기를 축적하고, 군사와 백성과의 병들을 널리 모아 조련시키고 있는 것, 이런 사실들은 또 별천지란 말을 들을 수도 있지 않소외까.

남이신 아들은 티 순신은 꼬만해졌소.

원균 음소외다.

남이신 안하무인으로 되었던 말이요.

원균 음소외다.

남이신 가등을 잡을 천제일우의 그 기회를 놓쳤으니 분하단 말이요.

원균 음소외다. 가등을 잡으며 나가지 않은 그 점이 수상합니다. 오늘에 와서 누가 그의 충성을

믿겠소외까.

남이신 좌우간 만나 말을 들어 보겠소.

원균 그럼 이번 귀결은 어찌 되오니까?

남이신 그야 뻔한 일이요.

명감이:.. 충청 병사로 오래 계신 것은 잘 된 일이 아니었소.

원균 아 하말이 밝아 지외다. 물에서 놀던 노기를 목지에 갖다 놓으니 견딜 수 있겠느냐 말씀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하면 불평이라 하고:.. 실로 몇해 동안 피로운 세월을 보냈소이다.

남이신 이제는 더 피로워하실 것 없소외다. 이제 곧 선전관이 올 것이니 잠시 재사에 나가 기다려 주시오.

장군을 잡자는 함정이었소. 자, 보시오. (첩보를 읽는다.) 소서 진의 왜장들은 티 순신을 잡아—한산도를 함몰하고 전라도로 들어 가자—이렇게 떠들고 있으며, 가동의 수하들은 해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장군님이 바다로 나올 때를 기다렸으나 결국 허탕을 친고로 모두 분하다고들 떠들고 있습니다.

리영립

장군의 생각하심이 옳았소.

송의립

만일 바다로 전군을 몰고 나갔더라면 놈들의 함정에 빠졌을 것이요.

△ 이때 밖에서 웅천 소리를 들린다.

소 리 사성 남이신 어사도 들시오.

△ 남이신 등장. 그 뒤에 원균 등장.

△ 우후와 군관들은 허탄을 곱힌다.

남이신

잡시 이 자라를 퇴해 탈라.

△ 우후, 군관들 퇴장.

△ 남이신은 운주당을 유심히 돌아 본다.

남이신

과연 좋은 곳이요. 한산도는 천하 거진이라 말할 만하오. 허나 들던 바와는 다르지 않은

가? 『한산도는 별천지다!』 『한산도엔 궁궐을 꾸더 났다!』 하더니 이 운주당은 아주

박하오. 한산도엔 궁궐 같은 게 없소.

원균

허나... 이 운주당에서 왕명을 거역한 사실, 그리고 이 한산 진영에 부합지 않을 정도의 군

때가 와야 했다.

리순신

어머님 이제 화평한 세월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머님, 그만 밤으로 드십시오.

어머니

(일어나며) 왜 구 그래도 이렇게 너를 만나 나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는 것도 같다. 요즘 아산에 있는 아이들은 잘들 있는지?

리순신

면이에게서 편지가 왔소이다. 모두 무고히 지낸다 하오이다.

△ 순신 어머니를 모시고 퇴장.

△ 파도 소리 더 높아지고 어느덧 하늘엔 구름이 일기 시작하여 달빛이 때때로 가리워지군 한다.

△ 바람이 밀리서 일기 시작한다.

△ 우후와 군관들(송 회림, 리영남) 등장.

리영남

조정에서 어사도가 내려 왔소.

송회림

원정 구일일 것이요.

리영남

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소. 장군께서 너무...

송회림

허나 사실(査實)차라 하면...

리영남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송회림

좋은 기회요. 지금 막 거제에서 김통길의 첩보가 왔소. (첩보를 펼친다.) 확실히 리순신

어머니 그 런데 나는 왜 잡으러 나가지 않았느냐?

리순진 (백우 피랍포 난취한 태도를 가지며)

어머님! 그 일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말씀 드리기 힘듭니다. 나라에 충성을 다 하자는 한 가지 마음, 애적의 간계에 빠져 대사를 망치지 않았다는 한 가지 일로 저는 나가지 않았습  
니다.

어머니

이 늙은 어미가 네 충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누구보다 결백하고, 옳다고 생각하  
는 일은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매성품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그걸 누구 보  
다 잘 알기 때문에 더욱 근심이 되는구나. 아무런 네 소견이 옳다기로서니 조정의 명을 거  
역할 수 있단 말이냐, 무서운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리순진

어머님... 안심하십시오. 자기만 결백하고 옳은 담에야 무엇을 겁내오리까.

어머니

내가 조산 만호(造山萬戶)로 있을 때 억울한 죄를 입어 죽을 번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패생각이 착구난다. 네 부친은 세상을 떠나신 지 오래구 이 어머니는 이렇게 하였구... 네  
관할... (관할을 짓는다.)

리순진

어머님, 그 때도 저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모든 게 밝혀지고 또 밝혀질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도 조정의 강제를 올렸으니까 조정에서도 저외 처사가 옳았음  
을 인정해 주실 겁니다.

어머니

나는 너를 믿는다. 누구의 말을 믿겠니... 어서 도적들이 물러가고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

어머니 명나라 장수들도 와 보구 감탄을 하더라지.

리순신 천하에 이런 처진은 들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 배민하겠느냐, 삼드 수군을 잘 거느리고 은주당에서 정사를 잘 하고 백성들의 사정을 잘 돌보아 준다는 그런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어미 마음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리순신 하오나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고 걱정과 근심을 사드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머니는 세가 금년에 九〇, 제 나이가 벌써 선셋입니다. 천세 해 동안 어머니께 근심을 드리었고, 아니 六〇여 년을 자손들로 해서 마음을 태우셨습니다.

어머니 어미가 자식들로 해 근심하는 것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어느 형제보다 내 마음을 편히 해주었고 어미께 대한 마음도 지극한 줄 안다.

리순신 어마님 밤 바람이 아직도 차합니다. 감기나 드시면... 완아, 어서 별당을 치우도록 해라.

리 완 (상수로 퇴장.)

어머니 아니다. 오일은 어찌 가슴이 답답하구나. 예서 좀이야길 하자. (돌아 보고) 내 니한테 불어 불 말이 있어 실상은 이렇게 찾아 온 게다.

리순신 (임추해진다.)

어머니 바다를 건너오는 가등청정을 나가 잡으라는 조청의 명령이 계셨다는데 그게 저실하냐?

리순신 저실합니다.

△ 잠시 사이. 물결 소리만 들린다.

△ 리순신과 리완이 순신의 모 변씨(卞氏)를 모시고 등장.

리순신 어머니께서 이렇게 출저에 오실 줄은... 사람이 라도 먼저 띄우시지:

어머니 너무 두 궁금해서 불시루 찾아 왔다.

리순신 군무가 한가지 않아 자주가 뵈옵지 못하오니 자식된 도리가 아니오이다.

어머니 그런 녀려는 아예 말아. 내가 네 일술 돌보아 주지는 못 할망정 통제사의 증책을 진장군

으로 어찌이 한 어미로 해서 한 시각이라도 군사 일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느냐. 아예 그런 말은 말아. (운주당을 돌아 본다.) 예가 운주당이로구나.

리순신 그렇소이다. 어머니, 잠시 방으로...

어머니 이 시원한 마당에 앉아 저 바다를 보는 게 좋겠다.

△ 리완 의자돌 갔다 마당 높은 데 놓는다.

△ 순신 어머니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힌다.

어머니 한산섬이 좋다구를 하더니 정말 이렇게 와서 보니, 훌륭하다. 섬들이 많구 산세가 모하구 수정같이 맑은 바다물이 아늑하게 들어 앉았구.

리순신 저 산줄기가 이 바다 굽이를 에워싸서 이 안 바다에는 많은 배들을 잠추어 들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저 산 밖의 큰 바다에선 이 안을 들여다 볼 수 없는므로 이 지형을 보고 누구  
나 감탄하며 군사 진을 치기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젊은 조선공 이것 보라구요 : 할아버지, 육지 아저씨.

△ 모두 춤을 멈추고 그를 주목한다.

젊은 조선공 이것 보라구요. 글씨, (은근한 소리로) 서를서 어사도가 내려 온답니다.

박판의 어사라니? 그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젊은 조선공 장군께서 바다로 가등을 잡으러 나가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무슨 일이 있을 게라

구요.

모두 (서로 수군거린다.)

박판의 그때 누가 그 떠던가?

젊은 조선공 충청도에서 온 관속인데 장군님이 가등정정을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않은 일은 수상한 일이다. 무슨 일이 있을 게라구요.

오지 수상라니? 뭐가 수상해? 그럼 : 어 놀라운 말이다.

박판의 아나 이 때 명천지 밝은 날에, 뭐가 어찌? 야 이 사람아, 그때 그 따우 헛수작 하는 놈들을 그냥 뒀단 말인가, 당장 무다실 분질러 놓지 못하꼬 :

오지 그런 놈이 왜적의 압잡일는지도 모른다.

재종수 읍소.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한다. 가자, 그 놈이 어디 있는가? (젊은 조선공을 앞세우고 달려 나간다.)

△ 모두 흥분해서 응성거리며 나간다.

부인 - 아니 장군님의 어머니시면 지금 년세가 얼마나 되시는가?

부녀 - 구실 요인이시래요.

모두 (놀란다.)

박로인 - 그때두 아 죄 셋소리가 나게 정정하시다네.

유지 - 정말 부러운 일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다는 건 복이니까요.

박로인 - 암 부이구말구, 큰 복이지.

박로인 - 난 어머니 없이 살아 오는 게 포원이 졌어다.

박로인 - 여보게들, 자, 우리 오래간만에 이렇게들 만났고, 말두 밝고, 장군님께서 술을 또 주시겠

다고까지 하셨는데 춤 한번 추는 게 어떻겠나?

박로인 - 그거 참 좋은 말씀이외다. 입장단 무룡장단으로 한번 춤시다. 장단은 내가 칠 테니.

박로인 - 춤은 유지가 추게.

박로인 - (유지를 끌어 내며) 자거복선 나갑니다!

△ 유지가 사람들 속에 선다.

『당, 명, 평디콩』하면서 입장단 무룡장단이 흥겹게 시작된다.

유지 춤을 춘다.

흥겹고 사람들을 웃기는 아주 과달한 춤이 고조된다. 흥겨운 환성을 올리기도 한다.

△ 젊은 조선공 튀어 들어 온다.

고, 이런 총과 거북선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찌 고답치 않았는가?

1104113 정봉 교만우신 말씀입니다.

리순신 지금 왜적들이 다시는 우리의 바다를 노리며 덤비고작하노라. 허나 우리 군사들은 결사코한 발작도 이 찬산드에서 뒤으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니 녀려 말고 금년 농사도 풍작을 이루도록 해라.

1104111 들만 벌리 바다 밖으로 물리쳐 주시옵길...  
 하였소이다. 한 평의 땅이라도 더 개간하여 소출을 더 많이 내기로 작정이은바 그지 왜적

리순신 맹세하노라. 나리와 그대들앞에 맹세안하고 누구에게 하였는가. 그러면 오늘은 편히할 쉬도록 하라. 송근관, 오늘날은 양무장에서 온 이들과 공인들에게 술을 굶 내도록 하라.

송근관

모두 (기뻐한다.)

△ 송근관 퇴장.

△ 리영남 등장.

리영남 대감, 시방 부두에 대부인께서 오십니다.

리순신 (국히 놀라며) 어머님께서... 어머님께서...

△ 리순신 급히 퇴장.

△ 리완, 리영남 함께 퇴장.

리순신 (반기며) 아 만나 보고 싶었노라. 순천 들산도(突山島)에서도 왔는가?

홍근신 1 왔소이다.

홍근신 1 밀리 남해 황원곶(黃原串)에서도 왔습니다.

송의립 도양장(道陽場)에서 화이도(花爾島)에서 모두 왔소이다.

리순신 먼길에 수고를 했노라. 그때 농장들에서 살기가 어떠한지?

홍근신 1 이제는 아주 자리가 잡혔소이다. 임진년 전란을 만나 집을 잃고 땅을 잃고 노향을 잃은 소인들이 장군님은 덕으로 이전 군색 없이 살고 있습니다.

리순신 그렇게 말해 주니 고맙노라. 그때 금년 파중에 증자 마련은 너더하겠지?

홍근신 1 너더하다 뿐입니까? 농사꾼이야 굶어 죽어 두 증자 벼는 빼고 죽는다 하옵는때.

리순신 하: 그리고 농사는 첫째 거름 마련이 소중하니 아이들 거름 때 덕을 짓 마련하듯이 거름 마련을 너더히 할 일이다.

홍근신 1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부 개바닥도 함고 볼도 빼고 두엄 마련을 너더히 했습니다.

리순신 잘했노라. 그때 농사의 반타작이 너무 힘에 겨웁지 않은가.

홍근신 1 소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수군 방비의 군량과 밀천을 위하는 일임을 생각할 때 어찌 반타작을 과하다 하오리까.

리순신 고맙노라. 만일 전쟁과 군사 방비가 아니라면 내 그대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 주고 싶노라. 실로 그대들은 모든 고초를 이겨 왔으며 그대들의 힘이 있으므로 우리 군사들이 먹고 입

됐다. 하...

모 두 (웃는다.)

리 완 오히려 왜놈의 총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박로인 그러니 이제는 조종 만드는데 법도 우리들한테서 배워 가라고 하는 게 좋겠소이다.

공인- 누가 가르쳐 주겠다고는 합니까요?

모 두 (홍그림게 웃는다.)

옥 지 조종은 몰라두 거부선 만드는데 법만은 간단코 가르쳐 줄 수도 없으며 가르쳐 주지도 않겠  
소이다.

공인- 그건 청개와 장사 심보일세.

옥 지 옳소이다. 이런 데는 청개와 장사 두 늘어야 하외다.

모 두 (홍그림게 웃는다.)

리준신 좋소이다.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건 장한 일이다. 비장!

리 완 예.

리준신 각 수령 관포들에서 이대로 만들도록 할 것이며 구상 좋은 것으로 골라 조정에 올려서 특  
군들에서도 이런 총을 많이 만들어 쓰도록 할 일이다.

리 완 알겠소이다.

승의핀 능무장들에서 장군님 뵈옵자 찾아들 왔소이다.

로 얼마나 또 근심할까? 아산에 계시면 떨어져서 못 간다 하지만 가까이 순전에 모셔 오  
구서도 자주가 읽지 못하니 얼마나 또 궁금하시오. 섭섭히 여기실까? : (일기를 쓰지  
작한다.)

△ 리완이 제충수리 필종(李必從)과 공인들과 함께 등장.

리완 제충수리 필종이 충을 다 만들었소이다.

리준신 (매우 반기며) 아 어디 보자.

제충수 (충을 바치며) 이번엔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을 더 길게 하여 구멍을 더 깊게 하였  
소이다.

리준신 (충을 자세히 살펴 보며) 몸대가 길구 방아쇠랑 아주 잘 됐다.

제충수 우리 나라 승자쌍구녕배기(勝字雙穴)보다 훨씬 멀리 가고 위력이 배나 됩니다.

리준신 음, 이만하면 최두 좋다. 한번 쓰아 봐라.

리완 (충을 받아 겨냥을 한다.)

△ 이럴 때 승희림이 농무장에서 온 농민들을 데리고 들어 온다. 그 뒤에 육지, 박 포인, 봉  
너를 비롯한 조선소 일꾼들도 따라 들어 온다.

리완 (충을 쓴다. 그 소리가 굉장하다.)

△ 공인들, 농민들 모두 감탄하여 웅성거린다.

리준신 (리완에게) 어떠냐? 왜놈들이 조종하나 가지고 큰소리 했지만 이제는 큰소리 못하게

있소위까. 또 그뿐 아니라 한산도에는 왕명도 거역하는 별칭지를 꾸며 놓았다는 등, 절교 드는 사람도 있구나, 어참으로 놀랍소위다. 놀랍소위다.

리순신

(피르운 심정으로) 형감! 그일로 너무 근심 마시꼬. 불피는 달들에 너무 개의치 마시다. :.. 를 위로하든) 형감! 그일로 너무 근심 마시꼬. 불피는 달들에 너무 개의치 마시다. :..

요시라의 말은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꼬묘하위다. 소서가 가등을 없애려 한다. 순신으로 하여금 가등을 잡게 하라. 두가지 기밀을 보네 왔소위다. 나는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음을 간파했소위다. 이 리순신 한 사람의 무숨은 아까울 것이 없사오. 오직 생각는 바는 나라와 백성의 운명이오이다. 만일 우리 수군이 한번 잘못되는 날이면 나라도 백성도 구하기 힘들 것이외다. 조정의 한 장교지를 잘못 받들어 천만 년 후손들에게 물리여 줄이 나라 국운을 그칠 수는 없사오. 절단코 없사오. 그러므로 그 즉시로, 조정에 그 사유를 말 씀해 올렸사오.

리영기

정녕 옳으신 말씀이요.

리순신

너무 걱정 마시꼬 바다로 나갈 차비를 하십시다.

리영기

그럼 장선에 나가 기다려겠소이다.

△ 리영기 역시 근심이 풀리지 않으나 무부(武夫)답게 나간다.

△ 리순신 혼자 생각에 잠기여 운주당 앞뜰을 거닌다.

리순신

.. 실기가 참이라? .. 만일 순천에 계신 어머님께서 이 일을 아신다면? .. 어찌이 심정으

리순신 가증이 바다를 건너온 지 벌써 달포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짜달짜 안하고 었보고만 있는 것은 바로 이 관문 때문이외다.

리영기 그렇소이다. 늬들은 또한 특지로, 전라도를 걸사코 덕어 들자 할 것이외다.

리순신 싸울 데가 도 왓소. 텃감, 도 나아잡시다. 천성 가덕으로!

리영기 나아잡시다. 생사를 같이 합시다. 나는 대감의 지휘하에 대감과 더불어 다시 싸움 마당으로 나아감을 끝없는 광영으로 생각하외다.

리순신 도 무슨 말씀을...

리영기 : 이런 말은 대감께 하지 않을 양으로 했으나, 이런 때를 당하여 대감 신변이 근심되기에:

리순신 : 무슨 말을 들으셨소외까?

리영기 대감께서 가등을 잡으려 나가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 물의가 생겼다 하외다.

리순신 물의라니?

리영기 조정에 서 물의가 일었다 하면, 원군 사도와 천풍의 구관(玄風 舊官) 박성(朴愷)이란 자는 『실기가참(失機可斬)』이라고까지 상소를 하였다 하니...

리순신 (선뜻 고개를 들어 놀라며) 실기가참이라: 기회문 많은 격로: 무을 떨 것이다...

리영기 (분개하여) 도원수부에서 온 소식이외다. 이럴 법이 있소외까. 수군에 대한 일을 대감에게 한 번 상론도 해 보지도 않고, 요시라의 말만을 믿고 이렇다 지털다 물의를 일으킬 수

리익기 왜놈들이 화의 운운하면서 四년 동안이나 우리 나라 남녘 바닷가 一六 洞에 등지를 볼고  
있으면서 마지막 화의 조부으로 내놓은 것뿐이오니까. 경상, 전라, 충청, 경기, 우덕의

리순신 에 도를 분할해 달라고 했으니 참으로 극제비 낮잡라도 럽치가 없는 놈들이외다.

리순신 나는 애초부터 화의를 밀지 않았소. 그저 제사년에 놈들을 비로 쓸듯이 짝 쓸어 내지 못  
한 게 잘못이외다.

리익기 하지만 임진년의 우덕가 생각했던 바는 옳았으며 또 왜적술 이겼소이다.

리순신 소서로 하여금 정양성술 내놓고 남으로 쫓겨 오게 만들었으니, 하...

리익기 하... 우리 수군의 큰 승리는 우덕 나라 뿐 아니라 우덕와 한이웃에 사는 명나라 백성들을 전  
란의 불길로부터 미연에 구했다고 말할 수 있소외다.

리순신 우리의 화평한 세월과 두 나라 군사가 우덕를 돕고 조명 땅군이 함께 왜적을 치는 것은, 두  
술소이다. 그러므로 명나라 군사가 우덕를 돕고 조명 땅군이 함께 왜적을 치는 것은, 두

리익기 나라의 화평한 세월과 두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는 위업으로 될 것이오이다.

리순신 지금 정세는 이 바닷가에 남아 있던 왜적들과 새로 바다를 건너온 一五만 대군이 세력을  
합쳐 크게 공세를 취할 양으로 탐탐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요. 놈들은 임진년의 참패

리익기 문 퇴물이 안 할 양으로 기어코 어떤 희생, 어떤 추움을 무릅쓰고라도 이 남녘 바다를 뚫  
고서 해로 기어오르려 할 것이외다.

리익기 그러나 이 한산도 관문은 놈들의 어떠한 발악으로도 부시지 못할 것이외다.

첫혀 놓고 어디 동제사 재목이 있자오리까.

원균 원별소리들, 좌우간 텅감이 내 심정을 알아 주니 이런 밤엔 한 말술이라도 단숨에 마실 듯하외다.

리몽구 저기 누가 오나보이다. 이왕 나오신 길에 대감을 만나시는 게...

원균 그만두겠소. 겨우 가라앉은 마을술 다시금 호릴 까닭이 없소. 차가서 술이나 또 들시다.

△원균 퇴장.

△리순신, 리억기 등장.

리몽구 아 사도께서 안녕하셨소니까?

리억기 얼마나 수고를 하시외까?

리순신 원균 사도께서는 혼자 계시오?

리몽구 조금 전에 대감 뵈옵자 오셨다가 안 계신지라 다시 사처로 가셨소이다.

리순신 아 팔싸, 내 나중에 가서 뵈도록 하겠소.

리몽구 그렇게 전갈하겠소이다. (퇴장.)

리억기 원균 사도 무슨 일로 이 한산도엘 왔소외까?

리순신 바다가 그리워서 지나던 길에 잠시 들렀다 하오이다. 텅감 오늘 마침 잘 오셨소이다.

리억기 풍운이 또 울려 드는지라 달려 왔소이다.

리순신 허지만 한산도의 달빛은 저렇게 교묘하외다. 하...

요시라에게 준 것이요. 이전 요시라의 말이요. 가등을 잡아 없애는 일은 조선의 원수를 갚는 일이다. 소서익제도 상책한 일이라고...

리원관 말 단하의다.

원관 그때서, 우병사령관은 그 기밀을 조정에 올린 것이며 조정은 동제사 폐감에게 교지를 내린 것이요.

리원관 『가등정정을 나가 잡으라!』 그런데 폐감은 나가지 않으셨소.

원관 그게 분하단 말이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쳤단 말이요. 이 일에 더하여 나는 조정에 도장을 올리고 의금부윤은 근수 폐감께도 글을 보냈소.

리원관 가등이 하나만 없었다면, 소서는 원대 죄의를 주장하는지라 싸움이 또 일어 날 티도 없지 않소 의까?

원관 내 발이 그 발이요. 아 아지 못게라, 동제사 폐감의 흉금을 모르겠노라. 그만치 영특하 분이 왕명을 거역하다니.

리원관 (새삼스러이 어쩔 위구를 느끼며) 그렇다면 미구에 무슨 벌이 있을 것 아니의까?

원관 왕명을 거역했거늘 어찌 무사하겠소.

리원관 초... 알겠소 의다. 그럼 장차 삼도 수군 동책사는?

원관 두루 볼사다. 하...

리원관 다... 이너두 십 리 하방에 순치만 남은 사람이 의다. 사실 년조로 보나 인제로 보나 명감은

물머서기는 했지만 그대는 어떤 천하명장이라도 그밖에는 도리가 없었을 것이요. 자 리일 순변자는 상주에서 나보다 더 패하였고 김명원 도원수도 립진강에서 패했지만 그때 지금 그분들의 자리가 떨어졌소? 올라 갔소? 내 자리를 탐내서 하는 말이 아니요. 옥포, 담포, 한산대첩, 이 모든 싸움에서 나두 목숨을 내걸고 싸웠소. 왜적의 목을 자른 수공의 수효만 하더라도 결단코 내 뒤보다 손색이 없을 것이요. 그런데 누가 나를 공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메 산골로 쫓았느냐 말요. 그래도 우후령감은 알 게 아니요.

리몽구

알다 뿐이외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 요시라란 사람은 정녕 믿을 만하오니까?

원균

경상 우병사령감의 말씀이요. 나라에서도 벌써 첩자 벼슬까지 준 사람인데 어찌 믿을 수 없겠소.

리몽구

그래 조선 사람이란 게 저실하오니까?

원균

저실하오. 저실한 조선 사람이요. 원래 대마도에서 살다가, 일본 말을 잘 하는므로 소에게 끌려와 몽변 노릇을 하고 있을망정, 그에게 충성심이 있었던 말이요. 그래서 가동청정이 수십만 대군을 끌고 바다를 건너온다는 기밀, 그 날자와 그 늑이 탄 배의 표식까지를 직접 경상 우병사에게 와서 밀고해 주었던 말이요.

리몽구

요시라는 그 기밀을 도용케 얻어 보소외다.

원균

거기엔 소서의 소원이 또 있단 말이요. 원래 소서와 가동은 서로 세력을 시기하여 으르려 거리는 허인지라 소서는 기회만 있으면 가동을 죽이자는 것이요. 그래 소서는 그 기밀을

원균 (선창 쪽을 바라보며) 우후 명감, 원균 땅미가 저렇게 선창이 메지도록 매일 같이 들어

오나?

리몽구 우리 수군이 부강한 탓이외다. 임진제사 이후 오늘 만큼 부강한 수군을 꾸리기엔 장군이

하어려운 고비를 여러 번 넘겼소외다.

원균 하 : 우후 명감도 그 동안 동제사 그늘에서 많이 말라졌구려.

리몽구 글썽은 나도 모르겠소외다. 사실 말은 바른대로, 동제사 대감을 모신 이후론 죽을 지경

이외다.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나, 계집을 또 마음대로 하 :

원균 파시 응출한 사람들이로다. 술도 계집도 남아 호걸엔 다 따물 수 있는 것이어늘, 특히 이

원균에게만은 시비가 더 많았으니.

리몽구 그야 명감께서는 싸움판에서까지 때 밀창에다 계집을 싣고 다니시니까 :

원균 어 싸움판이기로 계집하나나 들쭉 싣고 다니기보니, 어 응출한지고, 응출한지고 : (운주

담과 해포를 다시금 들아 보며) 아 한산도! 장산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지고 : 모

를 일이로다. 저만의 군기 군량을 마면해 놓고 어찌서 왜적을 치며 나가지 않았을가? :

우후, 내 그네을 믿으니 하는 말이지만 내 본시 물에서 놀던 사람인데. 누가 나를 충청도

두메 산골로 쫓았느냐 말요? 이럴 법이 있소? 내가 무슨 큰 죄가 있기로.

리몽구 그야 동제사 대감의 명을 잘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여 조정에서 :

원균 천만에 : 그런게 모두 날 헐뜯는 말이요. 임진년 첫 싸움에 내가 매에 붙을 지르고 뒤로

사도들 꺾어 좌천이나 시킨듯이...

리원 그만둡시다.

홍익립 이 떠난 때에 장군께서 바다로 가등을 잡으러 나가시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난 아무런 생각 해도 근심되오.

리원 :: (불안한 듯 끼며) 허나 자기물 선부하듯이 장군계선 조정의 명을 받으신 날 밤잠을 주무

시지 않고 깊이 생각하시었소. 허나 장군계선 바다로 나가시지 않으시고 그 사유를 조정의 장제로 말씀해 올리셨소. 모르긴 하거니와 조정에서도 장군님의 뜻을 알아 주실 거의다.

홍익립 장군랑미가 틀어 왔다는데 장군계선...

리원 알고 계시오. 선장으로 나가십시다.

△ 월균과 우후 거나하게 취해 동장.

△ 터완과 송희필은 원균을 데하여 허미 굽혀 테한다.

원균 (저탄스럽게) 아, 다들 평안하오? 문제사 대감 계신가?

리원 잠시 밖에 남시었소.

원균 아 그때, 일마나들 마르오. 응하... 원여기와 보니 장수와 군졸들이 누구하나 놀고 있

는 것을 볼 수 없으니...

홍익립 이만 나가 보겠소의다.

△ 터완, 송희필 퇴장.

없는 글이외다.

리 완

나는 장군님의 문장, 그 글자 하나 하나에서 아주 또 또 거운 것을 느낍니다. 장군님의 장  
지들... 그리고 일진년의 전사한 득드정은 만호를 위해 쓰신 추모 재문은 어더하였소이까.

송인민

잊히지 않소외다. 『그대의 충성과 의리는 그 글을 통하여 드문지라, 나라를 위하여 그대는  
몸을 바쳐 죽었노라. 그러나 그대는 길이 살아 있는 것과 같도다.』

리 완

참으로 우리는 잘 싸웠고, 싸움이 멎은 후엔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전염병으로 사람  
들이 터럭 쓰러지는 형편에서 부강한 수군을 꾸리기에 얼마나 또 분투했소이까.

송인민

입진, 계사 이후 삼년! 오늘날의 이 한산 거진은 신훈로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게  
되었소.

리 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으로써 비방하고 증상을 일삼으니 한심한 일외다.

송인민

모대체 원 관 사도는 무슨 일로 이 곳에 와서 사흘씩이나 묵고 있으니 모를 일외요.

리 완

무슨 럽치로 이 한산도엘 오겠소. 원 관 사도는 장군의 지시를 항시 재대로 받지 않았소.

(홍분하여) 무엇 때문인가?  
저위! 세도!

송인민

해저술 앞에 두고 어찌 그럴 수 있소이까. 장군께서는 오히려 조정에 간청하기를 원 관 사  
도와 저위를 바꾸어 달라고까지 하시었소.  
그런데 충청 별영으로부터는 과상한 말이 들려 오고 있지 않소이까. 마치 장군께서 원 관

은 사람들은 일이 끝나는 데로 나를 좀 만나게 하라. 그리고 조종판드는 것이 다 왔거든 가져 오게 하라.

리원네.

△ 리순신 박으로 나간다.

△ 리완운 주당에 올라 장군이 쓰다가 놓은 진중일기를 본다.

△ 송회택 등장.

송회택 비장은 무엇을 그리 골똘히 보시오?

리원 장군님의 진중일기(陣中日記)의다. 농장에 곡식 종자를 구해 보면 일까지 쓰셨소이다. 그

렇게 바쁘신 중에도 매일 일기를 쓰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시문을 쓰시고: 이전 장군께서 쓰신 한 수의 시조의다.(시조를 읊는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찌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끊는고.

송회택

정말 저조가 늦소이다. 나라를 걱정하시는 그 마음 일마나 깊은시오. 한다하는 풍류(風流) 시적(詩情)들이 꽃아침이니 달 저녁이니 맑찬 취흥으로 읊어 내는 그런 문장과는 바꿀 수

한삼섭 란 략은 밤에 수루에 혼자 앉아  
은 칼 옆에 차고 짙은 시름 하는 자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통 끊는고.

△ 순신은 다시금 붓을 물어 글을 쓴다.  
△ 디완 등장.

리완 (조용히) 데갈, 농무장물에서 군량미물 싣고 지금 또 선창에 닿았소이다.

리순신 :: (붓을 든 채 생각에 잠긴다.)

리완 저제네 보낸 의병 척후 통길에게선 아무런 기별이 없삽고, 전성 가덕에선 그 뜻해져들이  
우리 수군의 빈틈을 탐탐히 노리고 있을 뿐이라는 첩보가 왔소이다.

리순신 알겠따. 원군사도 오셨다더니 시방 무엇을 하고 계시냐?

리완 우후명감께서 술대접을 하고 계시다 하오.

리순신 .....

리완 그리고 찰우수영 사도께서 곧 오시겠다는 전갈이 왔소이다.

리순신 억기사도께서... (자막에서 일어나 나운주담을 내려서며) 완아.

리완 네.

리순신 내 줄 나가 거닐다 오셨으니 군량미는 그 푸증과 수량을 밝히어 받도록 하고 농무장외서

이 한산도는 거제 서남쪽 三〇리 밖에 있어 산이 바다를 싸고 굽었는데 그 안에는 매를 감추어 두기 좋고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으며, 왜적이 전라도를 돌아 서해로 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할 중요한 관문이며 절호의 군항(軍港)이다. 리 순신은 一五九三年(계사) 七月 一五일에 려수에서 이 한산도로 수영(水營)을 옮겨 왔고 그는 이 해 八月에 전라 좌수사를 겸임한 삼도(경상, 전라, 충청) 수군 통제사로 임명되었다. 이 때로부터 그의 한산도 시기가 시작된다.

## 무대

우편에 운주당(運籌堂)이 있고 그 앞과 그 좌편은 마당이며 이 마당 저 쪽으로 동로가 열렸고 그 쪽 저편으로 산들로 둘러싸인 푸른 바다가 보인다.

바다는 노 산들과 더불어 무한히 수려한 풍경을 이루었다.

운주당은 보통 동헌보다는 규모가 작으나 화려하지 않고 겸소한 건축으로 고상한 기풍을 보여 준다. 관청의 위압적이며 폐쇄적인 인상은 전혀 없다. 이 건물에는 바로 『運籌堂』이라고 쓴 현액이 붙어 있다.

## 리순신

해포(海浦) 우에 초저녁 달빛이 흐른다. 리 순신은 운주당에 앉아 글을 쓰고 있다. 어베션가 호가(胡笳) 소리를 들린다. 그는 잠시 그 소리를 읊으며 조용히 시조를 읊는다.

정벌의 야욕 버리지 않고

정전 화의니 군사 철회니

옥신옥신, 15년 뒤 재발...

전정을 다시금 마련했나니

한 가지 길로는 수십만 무력을 갖추고

한 가지 길로는 흉악한 모략

리 순신 장군을 없애리라

소시와 요시라 흉도를 꾸미며

드디어 1597년 다시금

정유재란(丁酉倭亂)의 불사길을 일으켰다.

### 제 五 장

甲 1597년(丁酉) 2월 26일。

곳 한산도(閑山島) 삼도 수군 통제영이다。

— 입 전 —

진격이다, 공격이다

이나라 가슴 깊이 침노해 들어온 바다 건너 월수를 몰아내는  
저 화포 소리! 들으라!

조선 인민의 슬기로운 피의 싸움은

관군! 의병!

리순신 장군이 거느린

저 남쪽 바다 조선 수군들의 위훈이 한산 해전의 드높은 승전고가

오늘 대동강반의 왜적은

남으로 몰아 낼 줄, 그 어찌

소서영장인을 알았으랴

한양의 물길 왜적 수단은

행주산성(幸州山城)의 참패를 겪은 후

정전『화의』(和議)의 안개를 치면서 죽음의 구렁 화양을 벗어나

경상도 바닷가도 도망쳐 내리 왔다.

허나, 잔악한 왜적은

탕송자

아  
장  
했.

△ 아장 허둥지둥 달려 나간다.

소서 분하다, 분하다, 이 정양성을 도로 내주긴 분하다.

요시라 아니 더장드노 그 처럼 정체가 뒤엎어졌소이까?

소서 여섯 달 동안 밀천이 드러났다. 허나 결코 정벌의 칼은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가자, 남쪽  
길이 막히기 전에: 그렇다, 이제 남쪽 길이 막힐 것이다: 최후의 경우 남쪽에서 다시금

일어 날 계획을 위해서.

요시라 바다의 길을 훑러야 하와다.

소서 리 순신을 잡도록 하라. 리 순신을:

△ 화포 소리 진동한다.

△ 창 박은 어느덧 어두워졌다.

△ 소서는 요시라와 함께 퇴장한다.

△ 호공 취자의 소리.

△ 화포, 소리 천지를 진동한다.

△ 무대 일각에 탕송자 등장.

**요시라** 원 규이란 사람이요, 수군 장수로선 리 순신보다 선배입지요. 그러나 싸운 공로에 의하여 리 순신은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되고, 원 규은 그의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원 규은 여기서부터:

**소서** 알겠당, 가동청정이 만일 내 옷자리로 올라 간다면 나 역시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요시라** 그때 조선 조정에선 원 규을 충청 병사로 물려 댔습지요. 여기서부터 원 규은 더욱 훌륭한 가지게 된바, 소서도노, 바로 여기다 불을 지른다던:

**소서** 좋다. 요시라 그대의 훌륭한 제표를 믿는다. 이 소서가 모든 장수들을 지배할 날이 올 것이다. 가동청정도 리 순신도.

**요시라** 그를 위해선 조선과 명나라 정벌의 대공으로서 살권을 잡으셔야 합지요, 대장도노.

**소서** 그렇다, 암초를 부리며 앞으로 나갈 것이다. 수단을 가리지 말라, 리 순신을 잡도록 하라.

△ 이때 멀타서 화포 소리는 은은히 들린다.

△ 소서는 미친듯 보석 함을 열고 보석 꾸러미를 한 줌 집어 든다.

△ 화포 소리 계속 가까이 들려 온다.

**요시라** 대장도노 저 소리가? (당황한다.)

△ 아장이 달려들어 온다.

**아장** 대장, 북쪽에서 총공격이 시작됐소이다.

**소서** 모산봉을 나누하라. 성문들을 사수하라.

음에서 우리 일본 수군은 전멸되다 싶이, 기원 땅이나 죽었으며 안골포(安骨浦) 싸움에서 마다시자마는 거의 죽다 살꼬... 그 뒤 일일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 수군은 거의 팔다리가 끊어진 사람 모양으로 되었습니다.

소 서 (노기를 이기지 못하더) 왜 그리 퍼하기만 했던 말이나?

요시라 그것은 첫째로 조선 사람들, 때성과 군사와 장수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무서운 무저로 싸

운다는 것, 둘째로 거부선이란 신출귀몰한 철갑선으로 돌격을 한다는 것과 셋째로 지금 삼포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로 된 리순신의 탁월한 전략 전술입니다.

소 서 리순신?

요시라 이 암초를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 수군이 서해 바다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재책이 있었습니다.

소 서 우리 일본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하나의 재책인 것이다.

요시라 그렇소이다. 열 가지 방책 가운데 확실히 하나 보될 것입니다. 신출귀몰한 거부선을 만든

사람도 리순신입니다. 그런데 이 리순신을 미워하는 조선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서

로 세력을 다투고 지위를 다투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해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

조선 정벌 일본군의 실력은 소서자마의 것이더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

로 대장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소 서 그때 누구냐?

요시라 요시락을시다.

소서 (다시 보고 놀라며) 아니 쓰신 옷을 그렇게 입으니 몰라 보셨군.

요시라 호: 이게 다 요시라의 본적이 아닙니까?

소서 자 이리 얹으라, 어찌 이리 늦었는가?

요시라 오다가 의병들로 해서 여터 변 죽을 뻔 했소이다. 그래서 차라리 이 쓰신복을 입었습니다.

소서 어서 말을 하라. 오늘도 우리 수군은 소식이:

요시라 일본 수군이 서해 바다로 오리라곤 아예 단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서 (입이 썩서 대답을 안 한다.)

요시라 (몸에서 수침을 꺼낸다.) 자 보십시오. 경상우도의 바다는 모두 우리 수중에 있습니다. 거제도도 우리 수군의 첫 진격은 경상 우수사 원군이 거느린 전선 五〇〇척을 부시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五월 초순, 전라 좌우도의 연합 수군을 리순신이 거느리고 대거 출동해서 거제 방면으로 진공해 나왔는바 우리 수군은 그야말로 치열 치열한 전투를 하였습니다. 五월, 六월, 七월, 八월, 九월 하나 우리 수군은 한번도 이겨 보지 못했고 서해 바다는 그사하고 남해 바다 앞으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옥포(玉浦) 싸움에서도 도도다까드라 자신이 겨우 생명을 건졌으며, 당포해전(唐浦海戰)에서 시나노가미구루시마미찌유키(信濃守來島通之)는 목숨 칼리여 죽었으며 한산도해전(閑山島海戰)에서 와카사카야스하루(脇坂安治)는 산으로도망을 쳐서 거의 굶어 죽다가 살았는바 이 싸

두사람이  
하.

△ 부하들 급히 퇴장.

△ 다시금 밖의 소음은 잠잠해진다.

△ 아장 등장.

소 서 어찌 됐는가?

아 장 안주에 집결한 조 명 량군이 진격을 시작했소이다. 확실하외다.

소 서 의주에서 안주로, 안주에서 평양으로! 조 명 량군은 이제 이 평양성을 포위할 것이다.

아 장 조선 의병 대군이 모란봉을 치고자 진격해 오고 있다 하외다.

소 서 지키라! 모란봉을 사수하도록 하라.

아 장 핫, 포로들을 어찌 하리까.

소 서 (창 밖을 내다보며) 저 눈 속에 물이 없애탄 말야. 귀만 하나씩 잘라 본국으로 보낼것.

어서 바빠 서들라.

아 장 핫.

△ 아장 퇴장.

△ 곧 요시라 등장. 그는 조선 옷을 입었다.

요시라 소서자마.

소 서 누구냐?

소 서 이게 무슨 소동이냐?

△ 왜병이 달려들어 온다.

왜 병 소동이 일어났소위다.

소 서 무슨 소동인가?

왜 병 대장도노, 북쪽에서 바로 안주에서 조선 군사와 명 나라 군사가 10만 대군으로 쳐들어

온다는 소문을 듣고:

△ 왜장을 모두 당황한다.

부하 1 조 명 황군이!

부하 1 수십만 대군으로!

아 장 대장도노 어찌 하오리까?

소 서 소동을 일으키는 놈들을 향하여 화포를 쏘라!

△ 아장 달려 나간다.

△ 화포 소리와 조종 소리가 일어난다.

소 서 여봐라.

부하들 하.

소 서 남으로 함구문(含口門)을 지키고 서북으로 보통문(普通門), 칠성문(七星門)을 지키도록 군

사들을 안전하게 배치하라.

부하! 대장도노, 우리 군사 일만 오천 명의 군기 쇠탕은 실로 걱정되는 바이다.

△ 소서 방장을 제견다.

장 밖에는 얼음 강산에 천 눈이 평평 쏟아진다.

부하! 본궁에서 실어 온 군기 군량이 부산에 있다지 않느냐?

부하! 뱃길이 끊어졌다. 바다길이 끊어졌다. 아아!

부하! 보통문(普通門) 방이군에도 화약과 철환이 부족됩니다.

소서 아아, 우는 소리 그만 하라...

△ 잠시 참묵이 흐른다.

소서 속전속결! 이것이 나의 전술이었다. : : 우리의 정세는 점점 좋지 않다. 여섯 달 동안, 조

신의 관군과 의병이 점점 기세를 올리기 시작했다. 우리가 점령한 목지의 많은 성들과 요

새들을 우리는 도루 빼앗기고 : : 가동청정이 함경도에서 밀리기 시작하였다. 후천장정(黑田

長政)은 황해도 안안성에 패하였고 경상도 우리 투관은 천타도도 진격하는 진에 진주성

에서 패하였다. 오히려 천타도의 조선 군사가 더거하여 한성을 향하여 진격하여 왔다. 이

모든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가? 만일 우리 수군이 바다길로 군사의 군기를 가져올 실어 온다

면 남으로 우리 점령군을 도울 수 있고 북으로 진격할 수 있고 : :

아 장 이제라도 오기만 한다면 : : 이제라도 늦지는 않았소이다.

△ 이 때 밖에서 사람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린다.

소서 (큰 소리) 내가 너희들만 못해서 그걸 생각지 못하는 줄 아느냐? 대체 요시라(與時繼)

는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 장 별책 저술서 온다는 소리, 골담도할 것이외다.

△ 밖에서 따드는 소리.

—안 된다 못한다.

—안 될 것이 무엇이냐, 대장을 만나 보겠다는데.

△ 한 왜병이 뛰어 물어 온다.

아 장 웬놈이냐?

왜 병 칠성문 방어군에서 왔소. 군량이 없소. 먹술 것이 없소.

소서 군량이 없다니, 조선 백성들의 집을 털면 살이 있고 곡식이 있고 고을마다 쌀 창고들이 있거니 배놈들은 알아서 갖다 줄 때를 기다리느냐?

왜 병 백성들을 죽이고 또 죽인대도 이제는 먹울게 더 나오지 않으며, 설혹 먹울게 있는 데라 할지라도 조선 의병들 때문에 마음놓고 왕래할 수 없으며, 잔밤에도 우리 군사들이 서진(西鎭) 쪽으로 나갔다가 림중량(林中樑)의 의병들에게 한 놈도 살아 오지 못하였소.

부하— 실로 제가 거느린 군사만 하여도 증화(中和), 상원(祥原)으로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그놈 의 의병들로 해서 수백 명이 살아 오지 못했소외다.

소서 그게 누구의 탓인가?



로 되었던 말씀.

소 서

이 늙무엇이 우둔한 작전인가? 이 늙은 대장을 비방하고 작전을 시비하는 늙이다. 예를 아, 당장이 늙의 목을 베라!

탐보장

(비명을 울리며) 아, 대장 꼬니사사마!

△ 병졸들 달려들어 탐보장을 끌어 내간다.

△ 밖에서 탐보장의 비명을 들린다.

△ 방안에 도살기가 돈다.

소 서

그때 이 소서가 어리석었던 말이냐.

아 장

우리 일본군의 수륙병진 전술은 현명하였으며 옳았소이다. 四월 一三일 부산진 상륙 이후 불과 두 달 동안에 우리는 조선 七도를 점령하였으며 조선 왕은 의주로 도망쳤소이다. 일본 특공대의 위력은 특히 소서사마께서 대장으로 거느린 우리 증포 진격 군대의 위력은 천하에 떨쳤소이다.

소 서

(저이기 만추한 표정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하다. 일본의 여덟 대장이 조선의 八도를 각각 담당하고 진격하였다. 나는 나의 은 지혜와 용명을 다 쏟아 싸웠으며 내가 뜻하는 데 트 왔다. 이 평안도를 나의 천지로 만들기 위하여. 실토 평양은 훌륭한 드읍지다. 이 산천을 나의 것으로 만들며 조선의 모든 물자와 금은 보화를 무너하며 조선의 남녀들을 노비로 부리면서 우리의 재산을 풍부히 할 수 있고 우리의 세력을 크게 할 수 있다. 나는 평안도

이외다. 진실로 조선 경문과 중국 경문을 망친 사실에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소외다.

소서 오일은 어찌 소식이 없는가?

△ 밖에서 소리친다.

—남포항 탐보장이요.

△ 탐보장이 등장하여 역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린다.

탐보장

탐보장은 삼가 소서 대장께 남포 바다와 서해 바다의 정형을 보고하옵는바 오늘날도 역시 오늘날도 서해 바다엔 갈매기만 날아 다닐 뿐, 우리 일본 수군의 매는 한 척도 보이지 않사온 바아마도 이제 전해는 전허가망이 없는 줄아오며 실로 지칠 대로 지쳤소외다.

소서

무슨 군소리가 그리 많으냐?

탐보장

일본 수군은 그 세력이 크고 전선과 무기들의 장비가 육군에 비하여 결코 떨어지지 않으므로 저는 육군보다 더 빨리 조선의 남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침습면서 대동강으로 올라올 줄 천만 믿었사외다. 허나 이제는 지쳤소외다. 어리석고 우둔한 짓을 했소외다.

소서

(스스로 자기 발발쳐 발악으로) 무엇이 어리석단 말이나?

탐보장

소장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오나 여섯 달 동안 기다린 것이 어리석은 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밖에는...

소서

이놈, 그때 결국은 이 소서행장이 어리석단 말이나?

탐보장

(망황하며) 그런 뜻으로 말씀한 전 아닙니다. 결국 기다린 보람이 어리석고 우둔한 작전으

양에 평상을 놓고 평상 머리인 겹대(疊臺) 위에 큰 칸을 옮겨 놓았다.  
또한 방(房) 여기저기 장막 곁에는 조선에서 약탈한 귀물(貴物)들을 정여 놓았다.

무대 발아지면

호서의 아장(亞將) 등 五-六명 부하들이 앞으로 코가 땅에 닿도록 얼굴을 굽히고 있고 정 상우에 앉은 소서는 느기등등한 태도이다. 그의 위엄은 충천할 듯하다.

소서 어찌 된 일이나?

모두 (대답이 없다.)

소서 어찌 된 일인지 말을 하라.

아장 아직 탐보장이 오지 못했사외다.

소서 오늘까지 여섯 달 동안을 기다렸다. 삼륙 십 팔 일백 팔십 일 매일 같이 기다

렸다.

아장 그 일의 대해서는 탐보장이나 이곳 병양에 진을 친 우리 군사의 책임은 아닐 줄 아

외다.

소서 아장은 숙에서 불이 일지 않는가? 일백 팔십 일 동안 초조한 일에 대해서...

아장 분하오이다.

만약 우리 수군의 마다시가 이 자리에 있다면는 그 무이 열 번 아니 백 번은 말아 놓을 것

리순신 나아가자!

모두 (기차 창점을 높이 들고) 나아가자!

△ 조종 취각의 소리 진동한다.

△ 화포 종동의 불이 바다를 향하여 터져 나간다. 그 소리 천지를 진동한다.

△ 군악이 계속 울린다.

—막—

### 제 四 장

田 一五九三년 一월。

田 景陽。

덕동강이 바다보이는 청허관(淸虛館)。

왜장 소서행장(小西行長)이 거처하는 넓은 방이다. 건물은 조선 건물이로되 내부 설비는 왜식으로 꾸미여 있다. 화려한 장막을 둘러치고, 또한 금빛이 반짝거리는 병풍을 치고 방중

말고 자기 제 말은 지분에서 충성을 다할 것.

— 에이.

리순신 료자로, 의병으로 나아가 싸울 젊은 장정들도 이 말을 명심할 것이다.

— 에이.

리순신 절단코 저병의 머리만 애써 베여 공을 나라내려 하지 말고 모두 힘을 합쳐 원수들을 모조리 섬멸하기에 힘쓸 것.

— 에이.

리순신 (더욱 엄격한 소리로) 누구나 군령에 복종하며, 장수와 병사가 한몸 한덩어리로 뭉쳐 싸울 것이 되 만일 물적의 명을 받고도 후퇴하는 자 있다면 당장에 머리를 베일 것이다.

— 에이.

리순신 참외장은 일포 용서를 두지 말라.

철퇴징

에이.

리순신 병서에 말하길, 죽기로써 싸우면 살고 살기로써 싸우면 죽는다 하였다. 만일 이번 싸움에 이기지 못하면 삼천리 조선이 두저와 바다로 왜적의 소굴이 될 것인즉 수천 년 역맥히 돌 퍼온 애국 충성을 다하여 나라의 명맥과 백성들의 복락을 위하여 죽기로써 싸울 것이다! 명심하라!

모두 에이.

— 에이.

리순신 찬회장 참회장 등대하였느냐?

— 에이.

리순신 들겨장, 유겨장, 그리고 구선장 등대하였느냐?

— 에이.

리순신 출진 차비로 전선에 판유선 협판선 포작전 차비 다 되었느냐?

— 에이.

리순신 거부선에 대명, 중명, 소명선 도합 二〇척 차비 다 되었느냐?

— 에이.

리순신 거부선에 류황, 염초, 자부진 낫파 배발 가진 줄갈구리 검찰에 소홀함이 없는가?

— 없는 줄 아시오.

리순신 모든 전함들에 천, 지, 천, 황, 승, 각종물을 차비 다 되었으며 장군전, 명전, 화전,

기원전 각종 화살 모든 군기에 소홀함이 없는가?

— 없는 줄 아시오.

리순신 듣거라! 우후 리 몽구는 류진장으로 본영을 지키고 날래고 담대한 다섯 가장(假將)들은

다섯 판포를 물썰음없이 지키고, 선발된 모든 장수들은 수하 수군을 거느리고 이제 싸움터

로 나아갈 것이니 우리 나라 삼천리 조국을 지키는 이 싸움에 절단코 하일된 공을 다루지

(우대 피전)

△ 리순신 앞으로 걸어 간다.  
그 뒤의 장수들이 따른다.

출진장(田陣場)

부두에 거북선이 서 있고 그 저 쪽으로 전선들이 서 있고 기치점구(旗幟緞鞞)들이 찬엄하  
다. 거북선 우에 독전기 발리고 선상과 부두 광장에 수군 장수들과 군사들이 서 있고 한  
옆의 의병 지원의 점은 장전들과 그 한 옆에 조선소, 농막 일꾼들이 참여하여 서 있다. 통  
진, 박포인, 봉포도 보인다.

△ 호봉 귀작의 소리 산하를 울린다. 리순신 장군 장대(將臺)의 오른다.  
엄숙한 순간.

리순신 (우령찬 소리로) 선봉장, 중위장 등대하였느냐?  
— 위이.

리순신 좌우 전후 부장을 등대하였느냐?  
— 위이.

리순신 좌우 최후장을 등대하였느냐?

리순신

고마운 말씀이외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은 웅렬한 사람이외다. 오직 죽기로써 싸우겠다는 생각 하나 뿐!

리영기

나 역시 농의 뒤를 따라 싸우겠소이다. 나라와 백성의 부탁을 뒤따라.

리순신

우리의 피로써 바다를 막기로 합시다.

리영기

순신공! (서로 손을 뜨겁게 잡는다.)

△ 나팔 소리 크게 울린다.

리영기

그럼 당포에서 퇴읍시다.

리순신

기다리겠소외다.

△ 리영기 굽히 죄장.

△ 리몽구 등장.

리몽구

출진 차비가 나왔소이다.

리순신

알겠노라, 우후경은 류진장(留鎭將)으로 본영을 틀러히 지키며 그리고 : 우도 접경 저대인 무지강란 그리고 구태의 도란 등지는 요충지라, 그곳을 지키도록 의병들을 도와 주라.

△ 리완 등장.

리완

경상도에서 찾아 온 젊은 장정들에게 모두 군기를 나누어 주었는바 지금 그들의 사기 대단합니다.

리순신

축다, 가자!

에서 놈들의 물건을 끊어 이 서해 바다로 일 보도 들어 서지 못하게 한다면 군사와 물자 보급의 길이 끊어질 것이외다.

**리영기** 그럴 때에는 놈들은 그것을 목지로 할 것이 아니외까.

**리순신**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이외다. 루지에선 우리 목군과 의령이 그것을 위협할 것이니까 :

**리영기** 퍼시 명철하시외다.

**리순신** 뿐만 아니라 놈들이 가명 평양성을 차지한달지라도 이 물길이 끊어지면 후방이 든든치 못

한지라 감히 앞으로 더 나아가기 힘들 것이며 또 설사의 유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 수군이 남해의 이 물우를 지키며 더 나아가 왜적의 소굴인 부산을 쫓아서 부산과 일본 사이에 놓인 놈들의 이 명맥을 위협한다면 평양에 있는 적이든 의주에 있는 적이든 으태 땀겨내지 못할 것이며 결국 범의 꼬리를 잡은 궁지에 빠질 것이외다.

**리영기** 호미난방이라, 하...

**리순신** 허지만 바다를 지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외다. 우리 수군은 시방 나와 역기공이 거

느린 두 수군이 남아 있을 뿐 저의 군사와 매들은 훨씬 많고 우리는 적오며 저들에게는 조종이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불타한 점들이외다.

**리영기** 그런 점도 있소외다. 허나 확고히 나는 믿소이다. 용맹한 우리 군사들과 우리 군사를 도와 주는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힘과 그리고 순신공의 탁월한 지략과 용의 지혜로 창안된 거북선의 위력을 믿소외다.

△ 러악기 동창.

리순신 (꽃아 내려가 그를 맞이하며) 명감! 기다렸소와다.

리영기 늦었소이다. 보내신 동문도 받았고 감사도의 관문도 받았소와다. 함께 나가십시다.

리순신 나가십시다.

리영기 명감, 왜적의 세력이 이렇게까지 극성할 줄은 몰랐소와다. 경기가 위태롭다니.

리순신 허나 방책이 있소와다. 왜놈들이 서울이 아니라 평양까지 간다 해도...

리영기 나도 생각한 바가 있소와다.

리순신 자 이 지도를 보십시다. 흉악한 도적들은 조선만이 아니라 명나라까지 치겠다는 심보인

즉, 육지로는 이렇게 서울과 평양을 지나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로 들어갈

계획이며 바다로는 이렇게 울릉도를 지나 서해 바다로 들어서 이렇게 올라 가서 한강으로

올라 육군과 합세하며 또 이렇게 황해도 바다를 지나 대동강으로 밀고 올라가 평양까지

은무군과 합세하여 다시 금수륙병진으로 의주로 올라갈 것입니다.

리영기

그렇소와다. 일본 수군은 압록강으로 올라 가서 조선과 명나라의 길을 막고자 할 것이외

다. 그러면 우리 조정은 명나라에 원군을 청할 수도 없고 또 그 원군이 올 수도 없고 뿐

리순신

바로 그 점의외다.

적은 이 바다길을 통해서 군기와 군량을 보급하려 할 것이외다. 잔일 우리 수군이 이 남쪽

부운 보인다.)

리순신 아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뜨거운 애정을 못이기는 듯 전부를 어루만져 본다.)

리면 이것은 조모님의 편지이다. (편지를 내놓는다.)

리순신 (백우 받기며 편지를 뜯어 본다.)

△ 환상적으로 어머니의 음성이 들린다.

순신아... 이 일이 웬 일이나, 우리 나라가 천고의 흉악한 해적의 침노를 입어 나라는 큰 노릇에 싸이고 사람들이 억울히 죽으며 원한과 흉흉한 마음으로 모두 잠 못 이루는 배라, 이러한 때에 나라의 신자가 되어 원수를 물리치는 전장의 나가지 않으며 싸우지 않으며 어찌 무릅을 아낄 것이랴, 이話は 어머니에게 부탁받은바다 싸움에 나가 죽기를 겁내지 말지니라...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승전한 북소리가 멀리 들려 오기 바라며 배 전사하였다 할지라도 이話は 어머니 눈을 흘리며 너의 승전을 더욱 기뻐하라... 너의 승전을 더욱 기뻐 하리라.

리순신

(어머니 앞에 다지는 맹세로) 어머니님, 명심하오리다. 맹세하오이다.

△ 들리는 소리.

— 전라 우수사 리역기사도 들시오.

△ 리순신 다시금 반가운 소리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 난다.

△ 편은 옷을 풀고 상방으로 들어 간다.

봉녀 의병! 그때 차비는 다 뵈었어?

김룡길

차비랄 제 뒤 있나? (치점을 킁아 보이며) 이것만 가지면 쓸데없지. 두구 보라구. 난 원수를 잡고야 말 것이니까. 봉녀, 우리가 원수를 무찌르고 고향으로 돌아 가서 어머니 산소에 갈 때는 이 칼을 들고 가서 어머니,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자구.

봉녀

그만, 그만 말 그만두라구, 난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자꾸 쏟아질려구 해서 못 견디겠어. (눈물을 씻는다.)

김룡길

(봉녀를 위로하는 심사로) 이제 고향엘 가면 집을 한 채 큼직하게 짓자구, 한 열두어 잔짜턱. 봉녀 싸우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을 다 해, 난 여기서 할아버지와 함께 초전소 일을 하며 화살을 쏘올 테야. 부디 잘 싸우라구.

김룡길

그럼 다녀 올 동안 잘 있어.

봉녀

몸조심해.

김룡길

몸을 애끼구야 싸움이 되나.

△ 두 사람 퇴장한다.

△ 갑옷을 입은 리순신 앞에서 등장. 그 뒤에 티엔(李顯) 따라 등장. 그는 슬기로운 소년이다.

리순신

그 먼 길에 어려이 왔다. 조모님께서도 안녕하시며 너의 모친도, 집안이 다 무고하다. 다행한 일이다. 다행한 일이다.

리면

조모님께서는 손수 지으신 전복을 저에게 주시면서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하셨소이다. (전

오로보로도들...

김영남   분부대로 하오리다. 장관의 말씀 장관의 출진은 우리 수군의 사기를 때 때로 들수의 주머니 성들을 기름의 눈물로 저시게 할 줄 믿소이다. 그럼.

△   티 임담 허미 함허 인사하고 달려 나간다.

△   동진이 무장을 갖추노 들어 온다.

김홍길   김동진 대령하였소.

리순신   어, 그때는 지남을 잃고 달렌 장정들을 제리고 당포 뒷산으로 달려 가라.

김홍길   예, 싸움이 오이니까?

리순신   싸움이다. 이제 바다 싸움에서 해적들이 왜하의 배를 버리고 물오로 기여 오르거든 싸워서

기다렸다가 일거에 무적로 도륙 하라!

김홍길   알겠소이다.

리순신   주사 차비하라.

김홍길   예이.

△   리순신 앞으로 든다.

△   이럴 때 봉녀 동헌을 저 복견의 들이 와 동진을 기다린다. 무얼 나가다가 그를 만난다.

봉녀   무슨 말씀을 들었어?

김홍길   남 인제 장관의 의병이 똬단 말이야.

길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는 법한 군법으로써 무을 행 것이니 그리 알라.

모두 (임숙한 태도로 허리를 굽힌다.)

리순신 (호령) (출진이다! 어서 출진차비 하여라!

모두 예이.

리순신 비장, 우수영 장수를 들게 하라. 그리고 경상도에서 온 젊은 장정들을 의병으로 뽑아 보

낼 것이니 모두 군기를 주고 그 중에서 통일이들이라 들게 하라.

리완 예이.

△ 모두 출진차비로 퇴장.

△ 리순신 감히 공함 글설을 쓴다.

△ 밖에서 출진차비를 다그치는 호령 귀각의 소리 울린다.

△ 리영남 등장.

리영남 돌포 만포 등대하였소이다.

리순신 돌포! (편지를 주며) 원군 사도께 안부 말씀 전하고 순신이 즉시 군사와 함선을 거느리

고 방포로 떠난다고 여쭙게, 그리고 전라 우수영에도 문문을 낸지라 이제 곧 리영기 사도

께서 당도하시면 전라 좌우도의 수군이 힘을 합쳐 당포로 나갈 것일세.

리영남 (니무나 감란하여 목메인 소리로) 알겠소이다. 장군!

리순신 그리고 한산, 거제의 돌곶이 험하고 순한 곳을 상세히 아는 인도선은 즉시 미조항(彌助項)

### 승희립

려있사은바 본분을 지킴이 좋을 듯하오이다.  
우리가 담포로 나가 싸운다 하여 그리 먼 곳이 아니며 또한 이곳 본영과 다섯 판포를 허술히 하고 나갈 때도 아닌지라 그런 녀려는 없을 줄 믿사오이다. 앞아서 방어전을 할 것이 아니라 적들이 가져드는 곳으로 나아가 치며 드디여는 적들의 소굴을 쳐서 소탕하도록 함이 옳은 줄 아오이다.

### 정 은

승희립 군관의 방책이 옳은 줄 믿소이다. 왜적은 반드시 수륙 병진의 계획으로 수군은 이 남해를 뚫고 서해로 돌아 한강으로 치올라 가서 경기로 올라 간 육군과 합세하여 서울을 치고 수륙으로 조선의 북쪽을 치자는 음흉한 심보를 가지고:

### 리준신

바로 그것이요, 우리가 왜적의 음흉한 계획을 알아야 하오.

### 리 완

그런데 소관은 내가 왜적 수군을 쳐서 승전할 것을 맹세하며 싸우다 전사할지라도 오히려 광영으로 생각하겠소이다.

### 정 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이런 때 무음을 바치지 않고 어느 때 바치오리까. 죽기를 한하고 싸움다민어찌 원수를 치이지 못하오리까. 즉시 출진함이 가한 줄 믿소이다.

### 리준신

(트개 기적하여 큰 소리로) 옳도다. 비장파투도의 결의 훌륭하도다. 일본 도적의 형세가 강성하여 나라와 백성이 도탄에 든 이때, 어찌 자기 좁은 테두리만을 지켜 본분이라 하겠는가. 내가 여타 장수들에게 들은 것 같음은 싸움에 대처할 훌륭한 방책일 뿐 오늘날은 마땅히 하나가 싸우는 일이니 원교사도물도와 힘을 합쳐 원수를 칠 것이니라. 이제 싸움의

리준신 한산도에서 오오이다. 지방 우수영 수군은 북의 적 함선을 다 없애고 우수영까지 함을 당  
하도 원교 사도는 한 척의 뱃머리에서 이 글월을 보내신 거외다.

리준신 내 이미 알고 있노라, 잠시 나가 기다리라.

리준신 예. (퇴장.)

리준신 (공함을 본다.) : 작은 날로 그렇게 사나와지며 : 수만의 일본 수군이 패함선을 거느리고  
저로이 바다를 건너온다는 글보! : 즉시 원병을 청하는 바니 당포 앞 바다  
로 달려와 주기 바라노라.

리완 한심한 일이오이다. 원교 사도 술과 계집술 너무 좋아한다더니 :

리준신 어서 소견들을 말하라. 어떠한 제책으로 왜적을 칠 것인가.

리준신 우주는 아뢰오. 우리 수군은 자기 본분을 지켜 멀과 당포나 당항포로 나갈 것이 아니라 가  
카이 도량 물무를 지켰다가 왜적을 이 물목에서 함몰시키어 상책일가 하오이다.

리준신 도량 물목에서 :

리완 패전지장 원교 사도의 처사를 생각하면 (울리 혀끝까지 나오는 말술 도르삼키며) : 하오  
나 도적이 부산에 송거해 있으면서 저제 바다에 침입해 오노 또한 왜적 수군이 수만 명 바  
다를 건너온다 하거늘 어찌 앉아서 오는 적을 기다리오리까. 원교 사도의 청원술 들어 당  
포로 나감이 좋을가 하오이다.

사도첨사

그렇게 멀리 나갔다가 이 천라도 바다가 물의의 번을 당하면 오히려 대적물 그르칠 법

닐손가:

리몽구 어 놀랍소이다. 경기가 무너지면 조정은 어디로 가오니까.

리원 평양으로, 그 다음은 의주로.

리몽구 그 다음을 생각해 보시오. 압록강을 건너: 어, 팔도 장산이 왜들의 것으로: 어 (황겁한

의성을 올린다.)

리순신 (크게 꾸짖는 소리로) 이 무슨 소린고, 이 나라 조정이 의주로 가는 한이 있랄지라도 팔도

장산이 왜적의 것으로 될 줄 아는가? 이 나라 백성들과 의로운 인재들이 죽었소 하고 있

을 줄 아는가: 본 도만 하여도 장홍의 고경명(高敬命), 광주의 김천일(金千鎰), 승평으

로 처영(處英) 등이 창의군(倡義軍)을 일으켰다 하며 전라 군사를 거느리고 경기의 저울 처

경사를 지키고자 출진하신다니 이 어찌 장한일이 아닌가. 이러한 애국 충성이 있는 이 나

라 어찌 왜적을 쳐서 몰아 내지 못할 것인가.

어영담 소관은 광양 두치(豆恥)의 의병함을 만나고 오는바 그 충성이 활갈음에 들렸소이다.

△ 라를 등장.

라 줄 아뢰오, 정창 우수영에서 플포(栗浦) 만호가 왔사오.

△ 리영남 등장.

리영남 아뢰오, 원균 사도의 서한을 전하오.

리순신 오, 그때는 리영남 만호, 수고하노라. 그래 어디서 오는 길인가?

리순신

나라더 어물거리고 있었사오니... 이러구야 어찌 저를 격퇴할 수 있으리까.

모두

(심각히 생각할 뿐이다.)  
다들 원인을 이렇게 말할 수 있노라. 허나 지금은 이것을 논하고 랫하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 수군의 증책을 지고 전라 좌수영의 수군으로서 지금 육지의 형세와 더불어 왜적 수군의 침공을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 것인가, 이것이 긴급하다.

리순신

전라 감영에서 전령이 왔소이다.

전령

전라 감사도의 판문을 올리오.

리순신

(서한을 받아 본다.)... 흠축하고 추악한 무리가 이미 충청도를 살고 경기에 탁도하게 되었

으며 경상 우수영 수관원 관경에 처하여 정현을 구하여 왔으니 어찌 나라의 미운이 아

## 부록 附錄

대청에 리순신과 정하규, 그 아래 가까이 리완, 송희립, 리몽구가 있고 북쪽도 만호 정은, 광양 현감의 영남을 비롯하여 각 읍 수령, 진장들과 군관들이 모이였다. 모두 진장되고 비닐과 적개심에 찬분위기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리순신** (조용히 말을 계속한다) ∴ 송희립 군관의 말이 옳다. 북지에서나 바다에서나 왜적을 막아 내지 못하고 있는 지금 형편, 이 어찌 위급한 국운이 아니겠느냐.

**정은** 북군에 관하여 말씀하면 문경 재재는 경상도에서 서울로 오르는 가장 큰 관문이온바 이 험준한 골짜기와 준령을, 철하에 으름가는 이 요새를 지키지 않고, 충주, 평원, 광야로 불려가 진을 쳤으니 어찌 정비되지 못한 우리 북군으로써 적의 대군을 막을 수 있으오리까. 도순변사 신립이야말로 어리석은 죽음을 하였소이다.

**리몽구** 원래 우리 나라 북군이나 수군이나 국방을 위하여 진작부터 나라의 힘을 기울이지 못한 까닭이오이다.

**송희립** 문란 아니라 『제승방략』(制勝方略)의 방어 적도가 왜적의 불의 침공을 막아 낼 수 없게 된 것도 오늘날 같은 참패를 가져 왔다 생각하오이다. 경상도만 하더라도 적이 침습해 오자 각 고을 군사들은 『제승방략』에 지목된 곳을 각각 찾아가 서울서 지휘장수가 올 때를 기

햇빛은 드높게 온 바다를 비쳐오리다.

△ 파도 소리 제차게 들리온다.

### 제 三 장

—막—

Ⅲ 전장에 서 한 시각후.  
곳 좌수영 수군 길도사 군정을 보는 동헌. (東軒)

그러크지 않은 동헌 대청이 상수 중심에 앉고, 그 앞과 좌수로 된 온돌. 대청 벽에는 술기  
있는 석화 몇 폭과 더불어 지복선 화폭이 걸려 있고 대청 한 앞에는 서적이 많이 쌓인 서가  
(書架)가 놓여 있다. 대청 전면에는 책상이 놓여 있고 그 우엔 좌전 지도들이 놓여  
있다.

에서 좌수 저편에는 바다가 보인다. 칠동한 구름이 멀리 가리웠다.

△택완 다가왔다가 말을 멈춘다.

리준신 (심자숙고하면서 동남천을 바라본다.)

△바다의 끝결 소리 유난히 크게 들려 오는 듯하다.

△리완 근심스런듯 조용히 장군 가까이 간다.

리준신 (바다를 향한 채) 누구냐?

리완 완이로스이다. 너무 피로하시면 앞으로 큰 싸움에...

리준신 나는 지금 네 조모님을 생각한다... 그 높은 천제에 안병하신지? 나라에 도적이 들노자

손들이 전장에 있으므로 얼마나 또 뜬눈으로 밤을 새우시는지?... 완아, 조모님께 편지를 써라. 이렇게 써라.

동남 해상에 검은 구름이 가리웠고

아침 햇빛이 검은 것과 싸우고 있소이다.

구름은 햇빛을 덮으려 하고

햇빛은 구름을 부시고자 합니다.

어찌이 어두운 더참을 수 있으리까

여기 큰 바람이 일면

구름은 무너져 창백해 문해 보

의 손에 들렸다 하오이다.

모두 (놀란다.)

리순신 (무히 놀라며) 우수영이... 백여 척이나 되는 함선을 없애다니... 백성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배들을... 아깝도다. 애석하도다.

리완 원군 사도의 처사는 바로 군벌으로써 허용 못할 일인 줄 아오이다.

모두 울소이다, 울소이다.

리순신 그런 말은 소홀히 할 게 아니다. 그래 왜적 수군의 정세는?

송의립 시방 거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적 수군 장수들의 이름은 마다시(馬多時)니, 동당교포(藤堂高虎)니 합니다. 이제 당포와 모양으로 달려들 것이오니 실로 난해 바다가 위급한 지경

이오이다. 앉아서 오는 적을 막을 것인가 나아가 원수를 칠 것인가?

리순신 (심각히 생각하며) :: 앉아서 오는 적을 막을 것인가? 나아가 원수를 칠 것인가? (결연히) 우수.

리완구 예.

리순신 한 사과 후에 동헌에 모두 모이도록 하라.

리완구 분부 대로 시행하오이다.

리순신 물러갈 가라!

△ 모두 물러간다.

전술치고 싸우다가 드디어 무너졌다고 한다.

모 두 (놀란다.)

정 은 동서포음에 그러한 방략 전술이 있다 합은 틀은 저 없소이다. 흥분하오이다.

리몽구 문경 재재를 지키지 못했으면 경기로 치달아 오르지 무인지경, 진실로 국운이 경각에 있

는 뜻하오이다.

리순신 파시 육지의 정황은, 강성한 왜적의 세력이 충청 경기로 펼쳐고 있으며 우리의 군사는 뒤

로 끌려서며 그 힘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허나 기호의 넓은 땅이 튼튼히 여기 있으며 남해

바다에서 왜적의 수군은 아직 세력을 펼치지 못하고 있노라. 내 그때들에게 각별히 부탁

하는 바는, 영세가 오늘 달라져도 태일 또 달라진다 하여 결코 흔들리지 말며 설사 도적이

코 앞에 닥쳐 온다 할지라도 겁을 먹지 말며 산과 같은 의지와 바다와 같은 지혜로써 적을

처 물리칠 방책을 생각하며 용맹지심을 가질 것이로다.

모 두 알겠소이다. △ 송희립 합히 등장.

송희립 아뢰오. 군관 송희립 경상도 남해를 돌아 보고 오는 길이오이다.

리순신 경상 우수영 수군은 어떻게 싸우고 있는냐?

송희립 경상 우수사 원군 사도는 왜적이 거제로 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싸워 보기도 전에 백여

척이나 되는 함선에, 자기로 불을 질러 없애고 목지로 피했으며, 이제는 우수영마저 왜적

의 일관함을, 모든 만기를 말드는 일관함을, 의를 구하고 필독을 해 오고, 뜻을 짓고 말을 짓는 모든 일관함의 계이로그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심을 다한 덕성들과, 그 덕들의 힘이 크다. 들뢰로는 드신유속의의 연구심부도 전수답지 일한 열성의 있노라.

윤 지 화갑하오나 이 위업은 첫째로 장군께서 능리하시고 또 설계하신 보람인 줄로 믿소이다.

리순신 허나 이 거북선을 볼고 나가 남해의 왜적을 쳐 없애기 전에는 위업도 보람도 크게 말할기 어렵노라.

윤 지 의답되게 한 말씀 묻자음은 시방, 왜적의 형제 어찌하오며 이 거북선은 어느 때 왜적은 치러 나가옵니까?

리순신 저을치더 나가고 물러섬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니라. 지금 우주와 북도 만호에게서도 들은 바이나 왜적이 충청도 충주를 뚫고 올라 갔다고 한다.

모 두 (불라미) 응성거된다. (충주들...)

리순신 내 이미 이제 온 감자도 관문(關文)으로 알았노라. 아직 발표하지 않은 바이나 이제 내 그 것을 말하겠노라. 부산 동래를 함몰한 왜적들은 새 길로 나누어 군사들을 몰아 가운데 길로는 배구, 상주, 문경 재계를 넘어 충주로 빠져고, 동쪽 길로는 경주, 영천을 거쳐 문경 재에서 가운데 길로 합치고 서쪽 길로는 김해, 성주, 금산, 부곡평을 넘어 청주로 마쳤다. 순변사 티일은 상주에서 뒤로 물러섰으며 서울서 뒤미쳐 내려 온 도순변사 신립은, 일부 당절(一夫當千)의 문경 재계를 버리고 평원 광야로 물러서, 충주 관금대 앞에서, 태수의

리순신 비장.

리완 예.

리순신 준공 정비가 다 됐느냐?

리완 지금 막 끝났소이다.

리순신 좋다. 수고했노라. 내 어제 나와 자세히 본 바에 의하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거북선이 잘 됐다고 본다. 옥지.

옥지 예.

리순신 구배판의 철잡판이나 이물의 철잡이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옥지 지금도 그 이야길 했소이다.

리순신 구배판에 무엇을 덮었느냐.

옥지 아무 것도 안 덮었소이다.

리순신 송곳과 칼끝들이 보이지 않도록 새풀을 덮도록 하자. 왜적들이 모르고 기여 오르게 스리.

옥지 소인배들이 채 생각지 못했소이다.

조선공 — 정말 훌륭한 계획이오이다. 왜적들이 아무 것도 없는 줄 알고 기여 오르다가는 새풀 속에 숨어 있는 송곳과 칼끝에 걸려 산적이 될 것이오이다.

조선공 — 남시에 들린 봉어 새끼가 될 걸세. (모두 웃는다.)

리순신 이와 같은 훌륭한 거북선을 만들어 내게 된 것은 첫째 벼성들의 힘이르다. 야장간, 옥공소

조선(三) 아꼴든 한 번 싸워 볼 판 열세. 좌충우돌, 나가노를 어가며... 왜놈들 이흥 다락배란 게  
다 뭐가. 이 지복선 한 놈이 왜놈의 전선(二) 처음 넘려 없이 바수어 버릴 걸세.

△ 리 완과 수군(一) 덕 안워서 나온다.

리 완 자루진 낫과 키 발출갈구리를 더 많이 신도록 해라.

수군(一) 알겠소이다.

△ 리 완은 수군(一)과 태에서 내려 와 옥지 결으로 잔다.

리 완 수고했소, 모두들 수고했소.

옥 지 비장께서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구 애를 쓰셨지요.

리 완 정말 생각하면 풍파가 많았소. 바로 임진년 전에 왜적의 침노가 장차 있을 것을 알고 수

군(護軍)으로 있던 신 팀(申裨)은 수군 방비가 소용 없으며 오직 육군 방비만 하던 된다고

했으니...  
그러서 한때 이 지복선 공자는 중단되고 비장파 저희들은, 너무나 안타까와 숨 죽은 사람

처럼 누워 있는 지복선을 어루만지며 울기까지 했습지요.

리 완 만일 장군께서 감지하게 상소를 하시고 조정이 또한 윤택하시지 않았더라면 오늘이 되

겠소, 정말 우리는 짧은 시일에 많은 패를 만들어 냈소.

△ 리 순신, 리 몽구, 정 윤 등장.

정 문은 그래서 전창에 가신다는 말씀을 듣구서두.

△ 정 문, 우후 터 몽구 퇴장.

△ 이럴 때 정 리 작업과 짐 나르는 일이 모두 끝났다. 옥지와 통길과 일꾼들이 배 위에서 배려 온다. 할아버지와 봉녀도 나갔던 쪽에서 들어 온다.

옥 지 어 떠나? 너무 이런 일은 처음일 게다.

김용길 정말 싸움에서 이긴다는 게 창이나 칼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옥 지 너무 이왕이 티 온 바에는 다른 데 갈 생각 말고 여기서 이 작은 애비하고 일을 하자.

김용길 저는 장군님을 따라 싸우러 나갈래요.

옥 지 (박 로인을 향하여) 할아버지 두 고집이 대단하십니다. 젊은이들처럼 일을 하시겠다니.

박 로인 진짜 여기 와 보니 나 이 덕은 게 원통할세.

옥 지 어떻게습니까. (거북선을 바라본다.)

박 로인 도무지 어떻게 고결할 수 없어. 내게는 그저 신기하게만 생각되게.

옥 지 하: 신기한 것이 구말구요. 세상엔 이런 것이 없으니까요. 허지만 나가 싸워 봐야 알 일입니다. 아직 도 부추찬 때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선공 1 그 때 두 이런 거북선이 구상할세.

조선공 2 구해판의 칠판이랑 이반에는 감쪽같이 들어 맞았어!

집저 남들은 사람 품에서 이편이 마지막 편이오이다.

수군( 리완에게 보노한다.) 비참, 추풍 장비와 군기 운탄은 다 끝났소이다.

리완 죽다, 수노한다.

△ 리완은 수군 一과 더불어 거부선으로 올라가 때 안으로 들어간다.

△ 우후 리몽구와 목도 만호 정은 등장.

리몽구 아니 그개 확장한 소문일는지?

정은 바로 수일 전 충청도를 떠나 온 믿음 만한 아전의 말이외다. 상주가 무너지고 충청도 청주가 떨어졌다 하외다.

리몽구 그럼 문경 재재는 지키지 않았단 말인가?

정은 그러니 기가 막히오. 어서 장군께 말씀 드려야 하겠는배.

리몽구 여기도 안 계시오... 가만 있자, 어떨 가졌을가?

정은 정녕 장군의 분부려와 강의한 정진은 어디 비할 바를 모르겠소.

리몽구 정말 옆에 있는 우마들이 장군을 따라 가기가 바쁘외다. 요즘은 거의 밤을 밝히다 싶이 하시니까.

정은 이거 북선을 보시오. 그야말로 우수영 터억기 사도의 탈출마다 청주에 빛날 위업이요, 만대에 떨칠 창업이요. 이거 북선이 바다로 나가는 날에는 절단로 승산이 있을 것이외다.

리몽구 글썽 원 왜적의 기세가 너무나 강성하니까 안심할 수 없소외다... 아차 이 정신 보겠나, 장

## 망이 어찌면

△등을 무렵 파도 소리.

△비장 리 완이 때 앞의 서 있고 수군과 조선장 일꾼(백성)들이 마저막 준공 정리를 다그치기 위하여 민첩하게 전투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한편 전투 준비를 하기 위하여 군기와 직방들을 배 안에 실어 나른다. 짐 나르는 사람들을 속에는 박 로인, 통진, 그들과 함께 온 젊은이들의 얼굴도 보인다. 조선공 옥지(玉只)는 배 위에서 리 완의 지시를 받고 있다.

리 완 거북선의 길이와 폭이 어떠한가?

옥 지 길이 일백 열 석 자, 넓이 열 너 자 다섯 치 도 본 대로 됐소이다.

리 완 신방(信防) 언방(儔防)에 부실함이 없는가?

옥 지 없소이다.

리 완 거북이 등 첩자판에 송곳과 칼들 두 모두 단단히 꽂혔는가?

옥 지 날땀이 서늘이 푸르게 쏘혔소이다.

리 완 종다, 좌우 양패(兩牌)에 각각 스물 두 개의 총동 구멍과 열 두 개의 문들은 어떠한가?

옥 지 이번 조선공들의 볼루 드려오도 아주 잘 됐음을 아시오.

리 완 종다! 내 생각엔 몇머리 통의 더가리도 잘 된 것 같다. 류창 염스는 다 실었는가?

옥 지 다 실었소이다.

리 완 (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모두들 바빠 일을 끝내도록 하자.

김영남 부녀. 이제 우리들 앞의 어떤 노생이 있어도 참으며 이겨 나가자구.  
행녀와 처정은 말의... 어서 가자구, 남들이 승화.

△ 봉노는 짐승과 다. 봉노질은 그의 짐승들이 더럭 울었어. 준다. 두 사람 같이 나간다.

— 일진 —

제 11 장

四 一五九二년 五月 초순.  
곳 전라 좌수영. (러수)

저복선 전조장.

한편으로 바다가 넓히 보이고, 바닷가 공사장에 지방 중공 정리의 최종 시각을 다그치는 거  
복선이 장관스럽게 서 있다. 때 우연 『龜』자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각기(角旗)들이 나뭇길다.  
우편으로 야장간 묵수터와 절창으로 봉하는 길과 원천으로 개사 동헌으로 봉하는 행로가 열  
려 있다.

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오늘날의 기초와 오늘날의 피가 태인의 승전이 되고 태인의 안락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 것이로다.

모 두 알겠소이다.

리순신 관판!

송희택 예.

리순신 관판은 여터분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 우선 성내로 인도하여 사치를 정하게 하고 식사를 마련하며 뜻을 따라 명부를 만들라.

송희택 예이.

리순신 그럼 여터분, 난 먼저 가겠노라.

박로인 장군님 황송하오이다.

△ 리순신 퇴장한다.

송희택 여터분, 나를 따르시오. 로인장, 함께 가십시오.

△ 송희택 박 로인을 베리고 나간다.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이 응성거리며 따라 나간다.

△ 리순신 장군의 말발굽 소리 멀리 사라져 간다.

△ 봉녀와 통길은 언덕 위에 서서 멀리 사라져 가는 장군을 바라본다.

기쁨길 리순신 장군!

봉 녀 정말 어버이 같은 분이야...

했사오며 또 저희를 끼리도 의사가 맞는 모양입니다.

몽 보 (수줍어한다.)

김동원 은 할아버지 두 저금이 어느 때라구 그런 소릴 꺼내세요.

리순신 하…

반편의 아이구 이거 죄송하옵니다.

리순신 죄송할 게 있소. 경사스런 일인데.

반편의 그리구 이 사람의 참손이 좌수영 조선장에서 일할 하고 있답니다.

리순신 조선장에서?… 성명을 누구라 하는가?

김동원 이름은 옥지라 하오이다.

리순신 (반기며) 옥지! 유명한 조선공이요.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요. 반가운 일이로군.

한점음이 소인은 자양분이 오이다. 잔과 창을 붙들아 오이다. 물에서 싸울 수도 있고 들에서 싸

울 수도 있소이다.

다른 한 점음이 소인은 곡수 일도 할 수 있고 농사도 질 수 있삽는바 둔전이나 조선소에 일할 주시던 충성정 감당해 보겠소이다. 보습을 칼로, 때패를 날로 원수를 치겠소이다.

리순신 훌륭하다. 모두들 충성이 지극한 마음들이다. 우리 나라 백성들의 충성이 이렇듯 크고 뜻

이 건고하거니, 이 충성과 뜻이 하나로 단합한다면 무슨 일을 못 하겠는가. 이 힘을 가지면 태산도 밀어 내며 바다도 끓을 것이더 왜군 二〇만 대적군은 몰아 내고도 남을 것이

터 갔자온데 동태성이 무너졌다오니... (육이 매여 말을 더 못한다.)

리준신

(동분한 심정을 억누르며) 알겠소이다. 왜적이 침노한 곳에는 불이 일고, 인민이 죽고, 가산을 빼앗기고 산천이 초토가 되었소. 우리는 일찌기 바다를 건너가 왜놈의 나라를 먹자고 찬일도 없고 일본 사람들을 죽이거나 강탈해 온 일도 없소. 그런데 일본 관택 홍신수길은 조선을 먹고 나아가선 중국 천지를 먹자는 도적의 심산으로 불의에 우리 조선을 침범해 왔소이다. 우리 수군이나 육군은 전쟁할 방법을 갖추지 못한 탓으로 시방 왜적들은 우리 나라 깊이 들어 오고 있소. 허지만 여러분, 부산전의 군사와 백성들과 정발(鄭發) 사도는 용맹스럽게 성을 지켜 싸웠으며, 동태성의 군사와 백성들과 송상현 사도 역시 왜적을 막아 천추에 빛날 이 나라 슬기를 펼쳤다 하니 이 아닌 장한 일인가.

박도인

소인배들이 생각는 바도 바로 그것이다. 사도께 찾아가 뵈고 선렬들의 본을 받아 나라를 위하는 일에 몸을 바치자구들... 또 이 젊은것들은 의병으로 싸우러 나가자고 해서 막 이야기하던 중이오이다.

김홍길

소인은 그저 군기를 들고 나가 싸우게만 가르쳐 주시면 몸이 가루가 되더라도 원수를 갚고야 말겠소이다.

리준신

좋은한 젊은이로다.

박도인

이 사람은 아주 의로운 마음인데 보시다 싶이 장광이며, 왜놈을 두 놈이나 도끼로 깎을 건 젊은 고탕이오이다. 아주 장군께 말씀 드립니다마는, 지붕너와 장차 짝을 짓기로 작정

리순신 (파수를 향하여) 이 분들이 모두 경상도 쪽에서 오는 이들이냐?

파수- 그렇소이다. 죄지 않은 이들이 파수영을 찾아 오는 길이며, 사드 뇌읍자고 오는 길이라 하오이다.

리순신 파수영을 찾았어? (군중을 향하여) 들소이다. 노인장, 아낙네들, 젊은이들, 자, 참서라도 쟈

히를 쉬시오. 노인장, 이리 앉으시고, 애기 어머니도... 정말 여터분의 짐은 고생은 짐작 할 수 있소. 나는 경상도 불스길 속에서, 왜적의 환난 속에서 오는 여터분들의 정정을 좀 알코자 나왔소. 그런데 마침이 못에 당도하니 여터분들이 한 곳에 모여 있기에 잠시 머물렀소이다. 그때 노인의 직술은...

박도인 장군님 황송하오이다, 너무나 뜻밖에도 장군님을 이런 데서 뵈게 되니 원어떻게 말씀은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소이다.

리순신 어서 말씀하시오.  
박도인 말을 하자면 먼저 가슴부터 떨립니다. 소인은 고생 봉화골 바닷가에 사육는데, 시방 남은 직술이란 저 손주달 하나 뿐입니다. 저것의 어미는 왜놈들 중에 죽었삽고, 젊은 며느리 하

나는 골라 갔소이다. 도대체 우리 조선이 왜놈들에게 무슨 빚을 졌으며 무슨 원수가 있길 레 이런 환난을 당해야 하오니까?

리순신 바로 그 말의이다. (한쪽을 돌아 보며) 애기 어머니는 어대서 오시오?

애기 어머니 김해로소이다. 남정과 시부모를 다 잃었소이다. 남정은 등래성으로 수자라 번을 들

하면 무섭구 치가 떨라구... 만일 내 할아버지가 왜놈들에게 끌려 갔다면... (운다.)

몽녀: 아주머니 그럴 생각 말고 그만 일이나 가십시오.  
중년부인: 자꾸 가가만 하면 어찌보 잔란 말인가, 하루 가면 그만치 고향에서 떨어져 구이불 가면 그만치 고향에서 떨어져...

김동길: 아주머니 여기 보시오. 못한 사람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슬프고 원통한 사정들을 가지고 있소. 허지만 우리 조선 백성들은 그 어떤 잔란도 싸워서 이겼구 하오. 깡아비지 안그 령습니까?

박도인: 맞았네, 우리 나라 옛날 사적이 모두 그랬네.

△ 이때 말발굽 소리를 들린다.

△ 파수를 물연히 더욱 긴장한다.

파수一: 아니 저게 웬 일인가, 사도께서 전배사령도 없이 후배사령도 없이.

파수二: 군관 한 사람이 따랐소.

△ 모든 사람들이 이의의 일에 놀라며 길 쪽을 내려다 본다.

△ 말발굽 소리가 가까이 와서 멈춘다.

파수一 (웬친다.): 전라 파수영 수군 철도사 리 순신 장군 영차 남시오.

△ 모든 사람들 자기를 위치에서 허리를 굽힌다.

△ 리 순신 장군 등장한다. 군관 송 회필이 따랐다.

실 거요. 누구나 리 순신 장군을 만나 보시면 알 거요. 그 분이 얼마나 백성들의 심정을 잘 알아 주시고 백성들과 나라를 위한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

**박판의** 우리도 잘 알고 왔습니다. 리 순신 장군은 인망이 높고 백성들을 금적이 여겨 주신다. 나 같은 미천하고 늙은 사람도 만나 주실 게요, 그 분은 우리네 생각에 맺힌 매듭들을 풀여 주실 것만 같아서... 통일이 자넌 더 잘 알 재 아닌가.

**김룡길** 알구 말구요. 그때서 할아버지를 모시구 온 게지요. 우리 삼촌은 좌수영 조선허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데 거북선이랑, 아주 신기한 배를 만드는데는 소식도 들었습지요.

**박판의** 맞았네. 바로 그 거북선 말일세, 삼도 수군 중에서도 이 곳 좌수영의 수군 방비가 으뜸이라구 하며 그 거북선이 그렇게 신기하다니 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파수이** 인제 좌수영엘 가시면 보게 될 것이지요. 그 거북선이 바다로 나가는 날에는 왜적들을 모두 바다 속에 처넣게 될 것이지요.

**한점의이** 말만 들어도 가슴이 시원하구나.

**중년부인** 허지만 지금 같애서는 군 앞이 캄캄하의다. 왜놈의 군자들은 자꾸 들어만 오구 우리 군사는 싸워서 아꼈단 소식은 없고, 예그우리 집 주인은 어찌 가구 시집갈 나이의 딸아이는 어찌로 잡는지. (울다.)

**중년부인** 아주머니 울자 말아요, 울어서 소용 없습지요.

**중년부인** 할체 마음을 단단히 먹는다 떠는 다 하면서도, 집문처럼 웃아 나는 걸 어찌겠나, 생과

**박문인**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 좌수영으로 가는 건 아닐세. 제 고향 제 집을 찾기 위해서 왜 길을 쳐 물리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자고 가는 사람일세.

**한점삼이** 그렇소이다. 우리 같이 젊은 놈들은 의병을 모아 싸우구요.

△ 한옆에서 젊은 사람을 수군거린다.

**김홍길** 경상도 합천과 의령 땅에선 벌써 의병들이 일어 났다고 한다. … 가만 있자, 어대서 들었느냐?

**봉녀** 장군바위 고개서…

**김홍길** 오라, 장군바위 고개서…

**한점삼이** 어떤가? 우리도 의병대장을 찾아가서 군기를 쥐고 한번 싸움판에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할일세.

**김홍길** 좋은 말이다. 사내 자식으루… 무슴은 똬다 똬에 쓰겠나.

**파수이** (룡길에게 가까이 가서 부드럽게) 사내 이름이 룡길이라구, 내가 사네를 몰라 왔네. (룡길의 손을 잡는다.)

**김홍길** 나 역시 수문장에게 온손치 못했네. (그들은 허심히 웃는다.)

**파수이** 그러기에 내가 뭐라든가. 큰소리 말라고 하지 않던가 하… (모두 웃는다.) 의병 말이 났으니 말이지 전라도에서도 의병들이 일어 났단 말을 들었네. 허나 내가 여려 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이왕 좌수영에 찾아 온 바에는 리순진 장군을 찾아 뵈면 좋은 방책을 가르쳐 주

김홍길

수문장, 너도 봐하니 시퍼렇게 검었구나, 자, 나를 잡아 봐라. 나는 제 살던 고향 땅을 문문히 왜적들에게 내준놈이다.

파수二

수문장 들어도 본동이 터져 나도 한 말이다.

김홍길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며) 그대 수문장 들고서 그렇다면 실지 이 눈으로 보고 겪은 사람들의 심정은 어떻게겠는가. 그대 우리가 수문장만 못해서 제 고향 제 집을 버리고 오는 줄 아는가? 여기 봐라. 여기 왜적들에게 제 집을 태우고 부모를 죽이고 형제들과 자식들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병보

그만 두라구... 그만둬. (불현듯 흐느낀다.)

김홍길

이제는 세상이 다 안다. 짐승 같은 왜놈들에게 점치는 너스레와 말들을 피앗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이 본동이 터지면 태산도 무너지고, 눈물을 흘리자면 강물도 넘칠 것이다.

종년 부인

우리가 당한 일을 생각하면 왜놈들의 잔을 찹어도 시원치 않다.

김홍길

나는 도끼를 들고 싸웠다. 왜놈들을 몇 놈 쳐서 꺼꾸러뜨리기도 했다. 허나 왜적들은 화포와 조종을 쓰아 대며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그대 어떻게 싸우란 말이나? 후엿을 가지고... (분함을 못 참아 주먹으로 땅을 친다.)

박포인

통길이, 그만 진정하게. 수문장도 봐하니 너무 분해서 그렇게 한 말이요, 자네도 그만 화를 못 참아 수문장에게 마구잡이로 말한 것 아니겠나.

파수二

(자기 반성적인 심각한 태도를 갖는다.)

파수二 저것 보슈. 으랄도 경상도 쪽에서 저렇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오고 있소.

파수一 왜놈들에게 잡혔는 죽음을 당하지 않을 양으로 오는 게다.

파수二 허지만 모인들이나 부녀자들은 몰라도 눈깔이 시퍼런 젊은 놈들이 제 집 제 고향을 지키지 않고 저게 뭐란 말이요.

파수一 너무 큰 소리 말아. 다 사정이 있는 게다.

졸린느 소리 (통길) 여보시오, 파수영이 예서 얼마나 되었어?

파수二 (큰 소리로) 야, 언화하니 눈깔이 시퍼렇게 젊었구나, 그대 경상도를 왜놈들 아가리에 쳐 넣고 문문히 뒤로 물러쳐 온단 말이냐?

졸린느 소리 야 회피운 소리 그만 뒤라.

파수二 찢어? 배 눈엔 보이는 것이 없느냐?

졸린느 소리 보인다, 똑똑히 보인다. 너 게 좀 있거라, 말 좀 해 보자.

파수二 아니 저놈이, 으라, 맛을 좀 볼라느냐?

△ 사람들의 음성 거리는, 소리를 들린다.

△ 긴장한 젊은이(김통길)가 감히 등장한다. 그 뒤에 봉녀와 할아버지(박 모인)가 다 보인 다른 사람들이 그야말로 구름처럼 응기증기 모여 등장한다.

김통길 (저한 태도로 파수를 본다.)

파수二 (그의 긴장하고 거리낌 없고 남아답게 생긴 기상과 태도에 우선 눈이 들린다.)

전령 동해 울산이 무너졌다. 도적은 상주의 문경 새재로 치달아 오르고 있다.

파수 一 문경 새재로?!

△ 전령 급히 퇴장한다.

다시금 말발굽 소리 다급히 재우치며 멀리 사라진다.

파수 一 죽일 놈들 대체 왜놈들은 우리 나라와 무슨 원수가 있어 침범해 든단 말이나.

파수 二 먹자는 거지요. 우리 나라 재물을 떼앗고 떡성들을 노비로 삼자는 거지요.

파수 一 누가 먹힌다더냐, 천만의 말씀이다.

파수 二 허지만 경상도를 벌써 먹어 든다니...

정말 머저리들이요. 경상도 감사나 수령사들은 왜적이 부산진을 함몰시켰다는 소문만 듣고 삼십륙계를 불렀더니 그럴 수 있나요.

파수 一 동분한 일이다. 이제 도적들은 바다를 끼고 천라도를 넘을 것이다.

파수 二 오라지요. 난 명색 없는 하출행이지만 한번 찌똥볼라오. 한번...

파수 一 말은 쉽고 하키는 어려운 법이다.

파수 二 어려울 게 없지요. 무숨을 내걸고 싸우는 데, 두구 보슈.

파수 一 두구 보면? 그해, 왜적들이 예까지 기여 들누룩 내버려 둘 줄 아니, 천만에... 조정에 서 순변사니, 방어사니, 초방장이니 하는 장수들을 내려 보냈더니 아꼐든 무슨 방책이 있을 제다.

성문 측면의 성부로 오르는 언덕과 층계.

성 위에서 군중의 웅성거리는 소리。(황태하는 사람들은 객사에서 보이지 않는다.)

말발굽 소리 다급히 들려 온다.

말발굽 소리 멎는다.

한 사람의 천령이 등장한다. 그는 승계 우에 올라 서서 좌우 산하를 둘러 보며 묻는다.

전령 수문장, 수문장!

파수 1, 11 (문루에서 내려 온다.)

전령 천라 좌수영을 어찌로 가느냐!

파수 1 리 순신 사도 계신 곳 말씀이요?

전령 그렇다.

파수 1 어데서 오시오.

전령 천라 감영에서 온다.

파수 1 바로 저 남쪽으로 뚫린 편한 길로 가시오.

전령 고맙다.(나가려 한다.)

파수 1 말 좀 들읍시다. 시방 왜적의 형세가 어찌하오?

어찌 산마다 강물 기슭마다

인민들 가슴마다 끓어 넘치지 않으랴

보라, 여기 맥맥히 흐른 그 전동

슬기론 애국 선렬의 영웅 전기를!

단 하나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붉은 충성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인민과 더불어

이 나라 바다의 평평을 지켜

도란과 시련의 불스길로부터

조국의 영광을 지켜 이긴 그 이

아! 바다의 명장, 티순신 장군의 영웅 전기를.

# 제 一 장

1915년 11월 22일 임진 4월 하순. (선조 15년)

꽃 피는 수, 천라 좌수영으로 가는 어느 성문.

남침승과 다름없는 날은

살벌한 노동 취객의 소리。

원수의 화포는 이 나라 생채를 부시고

야수의 무리 이 나라 인민을 활로 하니

아이들은으로 차마 볼 수 없고 귀로 차마 들을 수 없으랴。

고을과 마을에 피비린 바람이 일고

원한의 소리 산천 초목에 사무친다。

백두산하

삼천리 강로를 삼키고

나아가 명 나라를 치자는

일본 관백 봉신수길—

二〇만 대군의 왜적 선봉은

마치 무인지경 탈리듯

세 길로

이 나라 가슴 깊이 침노하련다

이 나라 수천년 애국의 붉은 핏결

제二장 전라 우수영 조선장。

제三장 전라 우수영 동헌—출진장。

제四장 평양성 왜진중。

제五장 한산도 운주당。

제六장 거제도 왜진중。

제七장 한양 육중—택의 종군의 길。

제八장 회령포 선창가。

제九장 리순신 장군의 선실。

△ 광송자가 중간 막 앞의 등장한다。

광송자

임진 왜란은 일었다

임진 조국 전쟁은 일었다

백해물 건너, 도적의 무리

이 나라 아름다운 강산을 불의의 침범하니

몽녀 (박득인의 손녀)

김룡길 (몽녀의 애인)

목지 (조선공)

리필종 (제충수)

소서행장 (小西行長, 왜장)

마다시 (馬多時, 왜군의 수군장)

요시라 (要時羅, 소서의 수하 반장)

기타 인물 다수

백성들, 장인들, 농군들, 수군들, 왜군 장졸들, 금부도사, 라장, 라졸들, 유사정들, 선견관, 전령, 탐후장 등 다수.

장 피

제 1 장 어느 성문.

리 원 (李莞, 순신의 비장, 그의 조카)

리 의기 (李億祺, 전라우도수군절도사)

리 면 (李鉉, 순신의 막내아들)

리 순신의 어머니(卍氏)

남 이신 (南以信, 사성, 어사)

리 원익 (李元翼, 도제참사)

정 탁 (鄭琢, 지중추부사 원로)

원 균 (元均, 경상우수사, 나중에 삼도수군통제사)

경상우병사

리 순신 수하 장수들

우후 리필구

광양현감 어필환

볼포만호 리연환

거제현령 안 위

미조항첩사 김응환

목포만호 정 환

박 만익

—집필자의 말—

우리의 견해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는 一九五四年엔 연극『리순신 장군』을 보시고 몇 가지 귀중한 표시를 주시었다.

고 김 태진은 자기의 희곡에서 리순신 장군을 형상함에 있어 선구자적 역할할 광범히 수정하였다.

그의 희곡을 옮김으로 리갑기, 정철을 비롯한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수상 동지 표시 심전할 위하여 오랫동안 창조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작품은 이러한 노력에 기초하여 김 태진 희곡의 우수한 점들을 이었으며 나의 새로운 책임 집필로서 이루어진 하나의 시고(試稿)임을 여기 밝히는 바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상 동지 표시 심전할 위하여 앞으로 계속 보충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적 인물

리순신 (李舜臣, 전라북도 수군 절도사 시가트르반 살트 수군 통제사 시가. 四七

제一五三세)

송희립 (宋希立, 순신외 군관)

희  
곡

리  
수  
진  
왕  
궁

(九  
장)